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1. 07



Contents

제1장.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3
2. 조사 설계	3
1) 조사 개요	3
2) 표본설계	4
3. 조사 내용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9
1.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11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12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13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4
5.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정도	15
6. 명칭에 대한 의견	16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17
1.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19
1) 법적인 가족 개념	19
2) 생계와 주거 공유 개념	21
3) 정서적 친밀성 관계 개념	23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25
1)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25
2)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27
3)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29
4)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31
5)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33
6)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35
7)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37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39
1) 한부모 가족의 자녀	39
2) 재혼 가족의 자녀	41
3) 미혼부/모(미혼부나 미혼모) 가족의 자녀	43
4)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	45
5) 다문화 가족의 자녀	47
6) 입양된 자녀	49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51
1)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51
2)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53
3) 아버지,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55
4)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57
5.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정도	59
1) 가족의 범위 확장	59
2) 자녀의 성과 본	61
3) 혼외자·혼중자 차별 폐지	63
6.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돌봄 등 서비스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 명칭	65
7.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타당성 정도	67

부 록1. 설문지	69
------------------------	-----------

이 용 자 를 위 하 여

1. 통계표, 도표, 그래프 내의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통계표, 도표, 그래프 내 시계열 분석에 따른 차이는 소수점 13번째 자리에서의 차이로 인해 $\pm 0.1\text{p}$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음
3. 유사 조사 또는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문항 내용에 차이가 있고, 조사 설계 및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함
4. 통계표 중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 조사는 되었으나 정보가 없는 경우
 - [0] : 조사 결과값이 0이거나 0의 근사값인 경우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1. 조사 목적

- 현재 가족의 모습은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된 '결혼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형태 뿐만 아니라,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임
-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부-자녀 중심의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국민 인식 개선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이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가족 지원정책 필요도,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함

2.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조사 규모	총 1,500명(95%신뢰수준 $\pm 2.53\%p$)
조사 방법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을 활용한 전화 조사
표본추출 방법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시스템 활용 (유선 : 무선 = 3 : 7)
조사 시기	2021년 6월 25일 ~ 7월 8일
조사 내용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및 개인적 수용도,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 필요도, 가족 포용 제도 개선, 법 명칭 및 권고 의견에 대한 인식, 응답자 특성 등 34개 세부문항

2) 표본설계

- 모집단 : 행정안전부, 2021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구 분포를 감안하여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배분을 실시함

[표1] 표본 배분

전체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전체	1,500	137	126	149	157	125	62	125	117	145	154	129	74
서울	288	27	26	27	27	22	11	29	26	27	28	24	14
부산	100	9	8	9	10	9	5	8	7	9	10	10	6
대구	71	7	5	7	7	6	3	6	5	7	8	6	4
광주	86	8	8	9	9	7	3	7	7	8	9	7	4
대전	40	4	3	4	4	3	2	4	3	4	4	3	2
인천	41	4	4	4	4	3	2	4	3	4	4	3	2
울산	33	3	3	3	4	3	1	2	3	3	4	3	1
세종	10	1	1	1	1	1		1	1	1	1	1	
경기	388	37	35	42	41	29	13	33	33	41	40	29	15
강원	46	4	3	4	5	5	2	3	3	4	5	5	3
충북	44	4	4	4	5	4	2	3	3	4	5	4	2
충남	58	5	5	6	6	5	3	4	4	6	6	5	3
전북	51	4	3	5	6	5	3	4	3	5	5	5	3
전남	50	4	3	5	6	5	3	3	3	4	5	5	4
경북	78	6	6	7	9	8	4	5	5	7	8	8	5
경남	96	8	7	10	11	9	4	7	7	9	10	9	5
제주	20	2	2	2	2	1	1	2	1	2	2	2	1

3. 조사 내용

[표2] 문항 구성표

구분	세부 내용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법적인 가족 개념
	생계와 주거 공유 개념
	정서적 친밀성 관계 개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한부모 가족의 자녀
	재혼 가족의 자녀
	미혼부/모(미혼부나 미혼모) 가족의 자녀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
	다문화 가족의 자녀
	입양된 자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아버지,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정도	가족의 범위 확장
	자녀의 성과 본
	혼외자·혼중자 용어 폐지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돌봄 등 서비스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 관련 바람직한 명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타당성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혼인 상태, 자녀유무, 학력, 직업, 주관적 경제적 수준, 가구 구성원

4. 응답자 특성

[표3] 응답자 특성

		사례수	%
■ 전체 ■		(1500)	100.0
성별	남성	(756)	50.4
	여성	(744)	49.6
연령	19-29세	(262)	17.5
	30-39세	(243)	16.2
	40-49세	(294)	19.6
	50-59세	(311)	20.7
	60-69세	(254)	16.9
	70-79세	(136)	9.1
성별x연령	남 19-29세	(137)	9.1
	남 30-39세	(126)	8.4
	남 40-49세	(149)	9.9
	남 50-59세	(157)	10.5
	남 60-69세	(125)	8.3
	남 70-79세	(62)	4.1
	여 19-29세	(125)	8.3
	여 30-39세	(117)	7.8
	여 40-49세	(145)	9.7
	여 50-59세	(154)	10.3
	여 60-69세	(129)	8.6
	여 70-79세	(74)	4.9
권역	수도권	(808)	53.9
	충청권	(153)	10.2
	경북권	(149)	9.9
	경남권	(229)	15.3
	전라권	(161)	10.7
직업	농/임/어업	(37)	2.5
	자영업	(235)	15.7
	블루칼라	(204)	13.6
	화이트칼라	(543)	36.2
	가정주부	(230)	15.3
	학생	(108)	7.2
	무직/은퇴/기타	(143)	9.5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35)	9.0
	고등학교 졸업	(378)	25.2
	대학교 재학/졸업	(844)	56.3
	대학원 재학/졸업	(143)	9.5

[표3] 응답자 특성 (계속)

		사례수	%
■ 전체 ■		(1,500)	100.0
혼인상태	미혼	(431)	28.7
	유배우	(982)	65.5
	이혼·별거	(44)	2.9
	사별	(40)	2.7
	기타	(3)	0.2
자녀유무	예	(1002)	66.8
	아니오	(498)	33.2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22.3
	중	(650)	43.3
	중하/하	(515)	34.3
세대 구성	1세대	(330)	22.0
	2세대	(918)	61.2
	3세대 이상	(58)	3.9
	1인 가구	(190)	12.7
	비혈연 가구	(4)	0.3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1.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5.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정도
6. 명칭에 대한 의견

1.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 '가족'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 가족'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64.6%가 동의함. '생계와 주거 공유 관계의 개념'은 68.5%, '정서적 친밀성 관계의 개념'은 39.3%가 가족으로 인식하며 동의함
- 전년 대비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 가족이라는 인식은 0.3%p 소폭 상승한 반면, 생계와 주거 공유 관계(-1.1%p)와 정서적 친밀성 관계(-0.6%p)로의 확장에 대한 인식은 하락함
 - 전년 대비 상승 및 하락 폭이 오차범위 내에 있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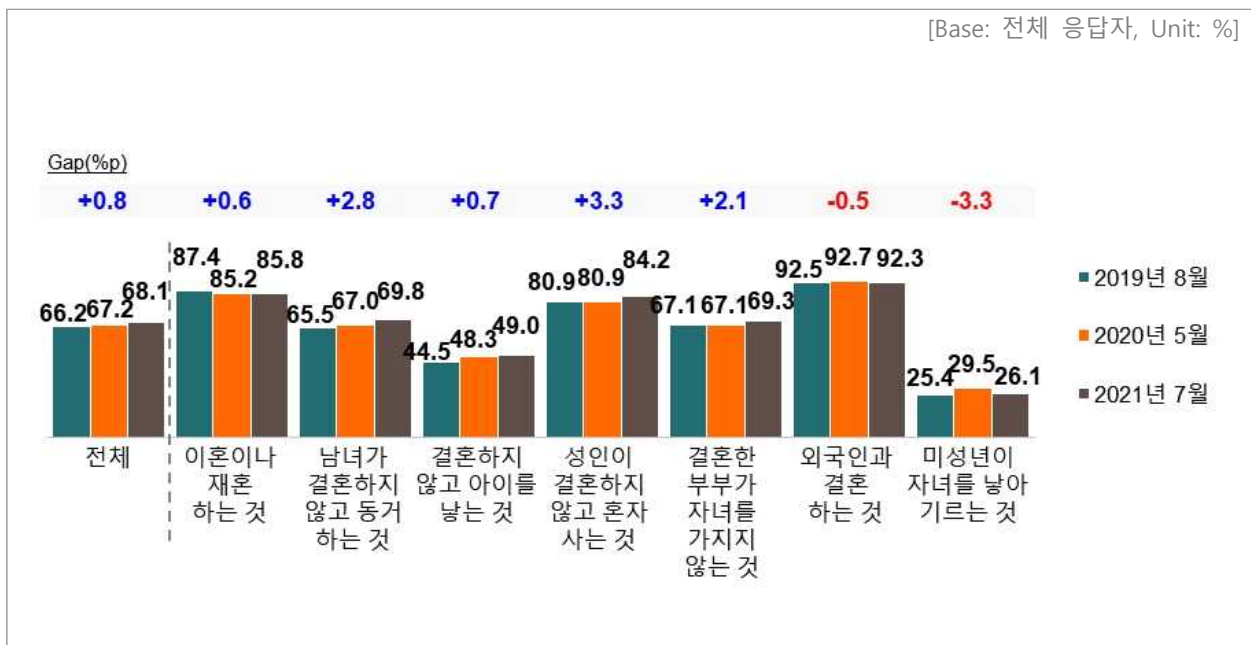
[그림1]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전년 대비 0.8%p 증가해 68.1%가 수용함
-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85.8%),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4.2%)에 대한 수용은 80% 이상으로 수용도가 높음
-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69.8%),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69.3%)에 대해서는 60% 이상 높은 편임. 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49.0%)과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26.1%)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전년 대비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3.3%p)과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2.8%p)에 대한 수용도는 상승 폭이 큼
-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3년 연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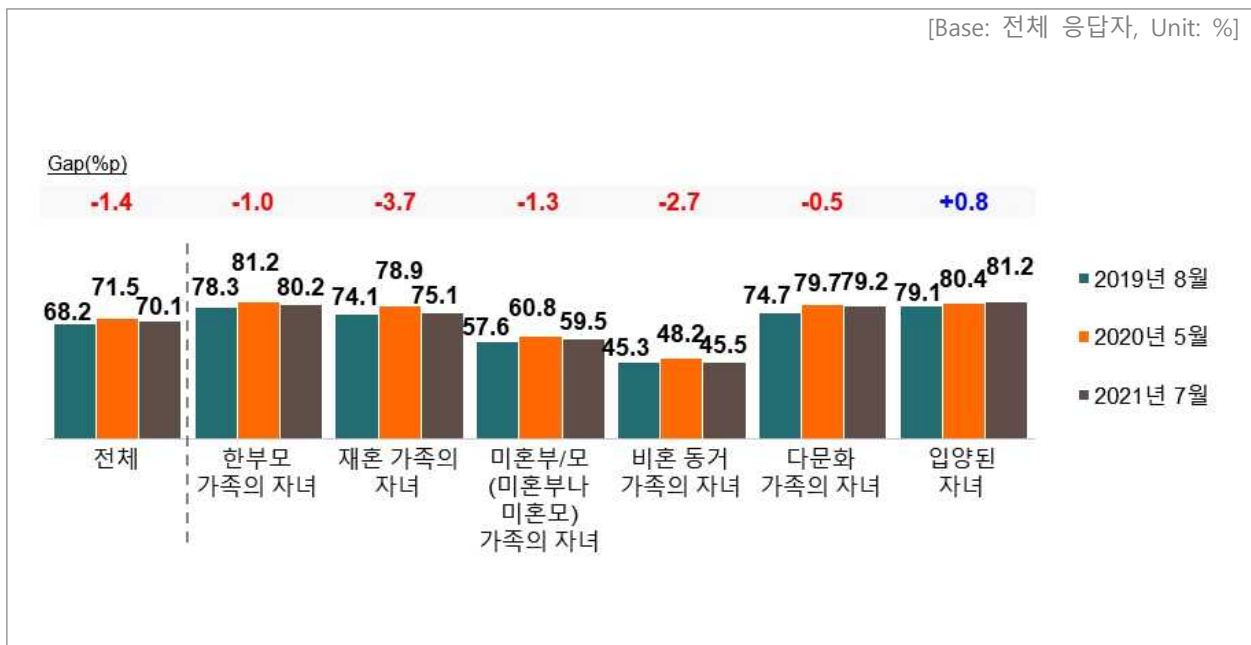
[그림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는 전년 대비 1.4%p 하락해 70.1%가 수용함
-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 가족의 형태가 '입양된 자녀'(81.2%), '한부모 가족의 자녀'(80.2%), '다문화 가족의 자녀'(79.2%), '재혼가족의 자녀'(75.1%)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찬성함
- 특히, 입양된 자녀에 대한 수용도는 3년 연속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반면,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59.5%)와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45.5%)에 대해서는 개인적 수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전년 대비 '재혼 가족의 자녀'(3.7%p)와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2.7%p)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큼.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49.0%로 낮은 편이었는데,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역시 45.5%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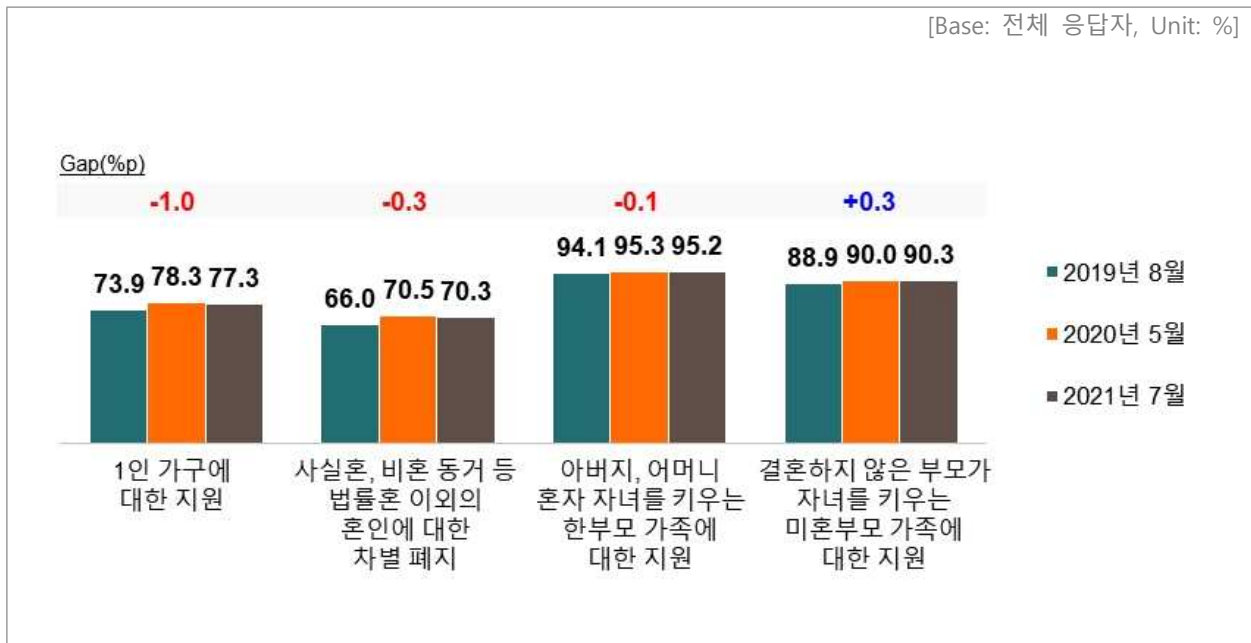
[그림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95.2%)과 '비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90.3%)의 필요성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3년 연속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77.3%),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70.3%)에 대한 정책 지원 역시 70% 이상으로 필요성이 높음
- 전년과 비교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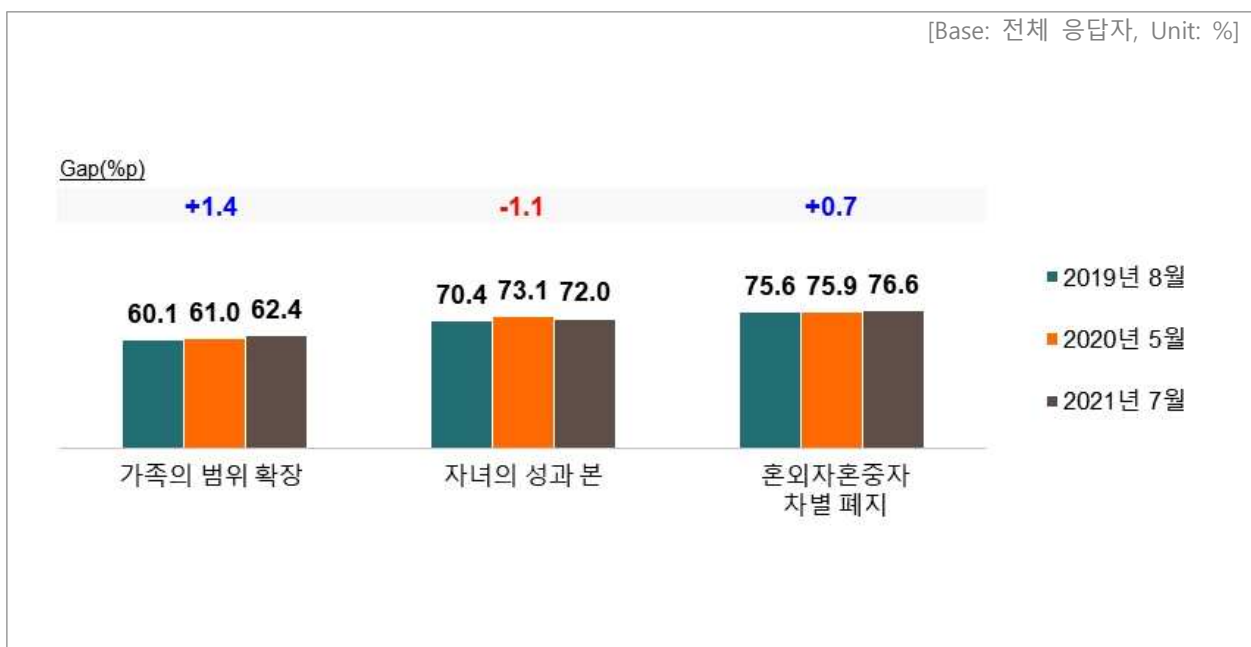
[그림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5.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정도

-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혼외자·혼중자 차별 폐지'는 전년 대비 0.7%p 상승한 76.6%로 나타남. '19년 8월 이후 3년 연속 혼외자·혼중자 용어 삭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소폭 상승함
- '자녀 출생신고 시 성과 본을 협의 하에 정하는 것'(72.0%)에 대한 동의는 전년 대비 -1.1%p 하락했음에도 72.0%로 동의정도가 높음
- 기존의 혼인, 혈연에 기반해 정의되는 가족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1.4%p 상승한 62.4%로 나타남. 이는 3년 연속 찬성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매우 찬성'하는 비중이 증가함('20년 20.2% → '21년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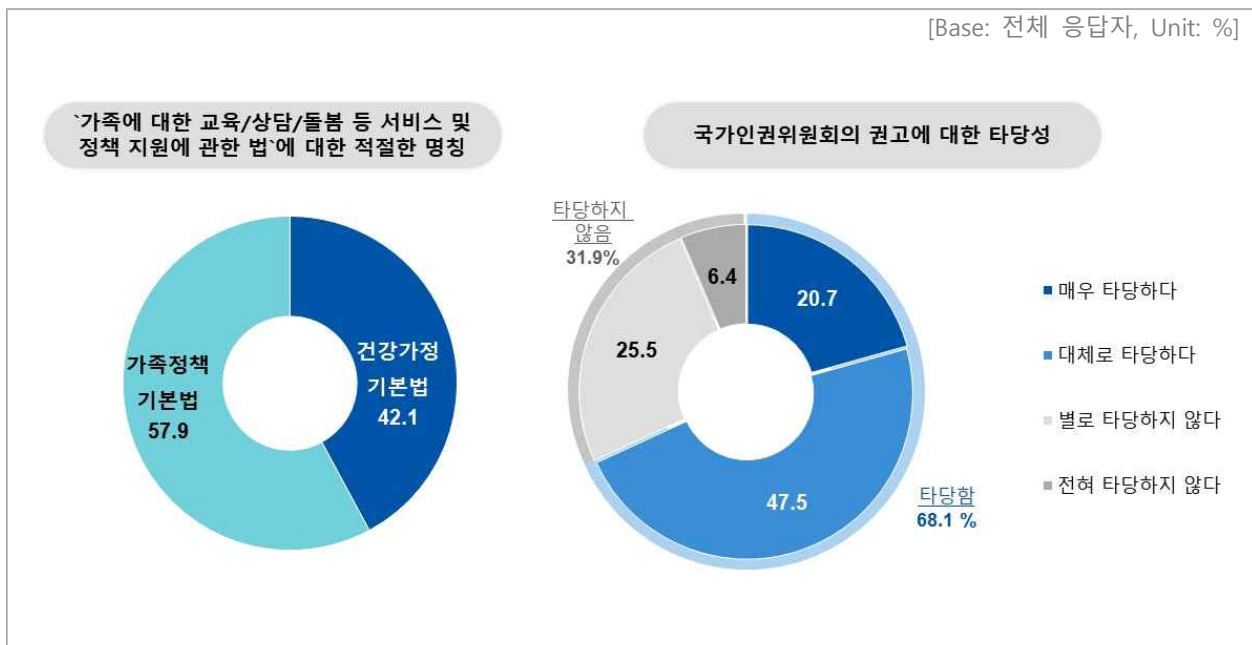
[그림5]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정도



6. 명칭에 대한 의견

-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돌봄 등 서비스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 적절한 명칭으로 '가족정책기본법'(57.9%)이 '건강가정기본법'(42.1%)보다 높게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법류명 수정 권고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68.1%로 타당하지 않다(31.9%)는 의견 보다 높음

[그림6] 명칭에 대한 의견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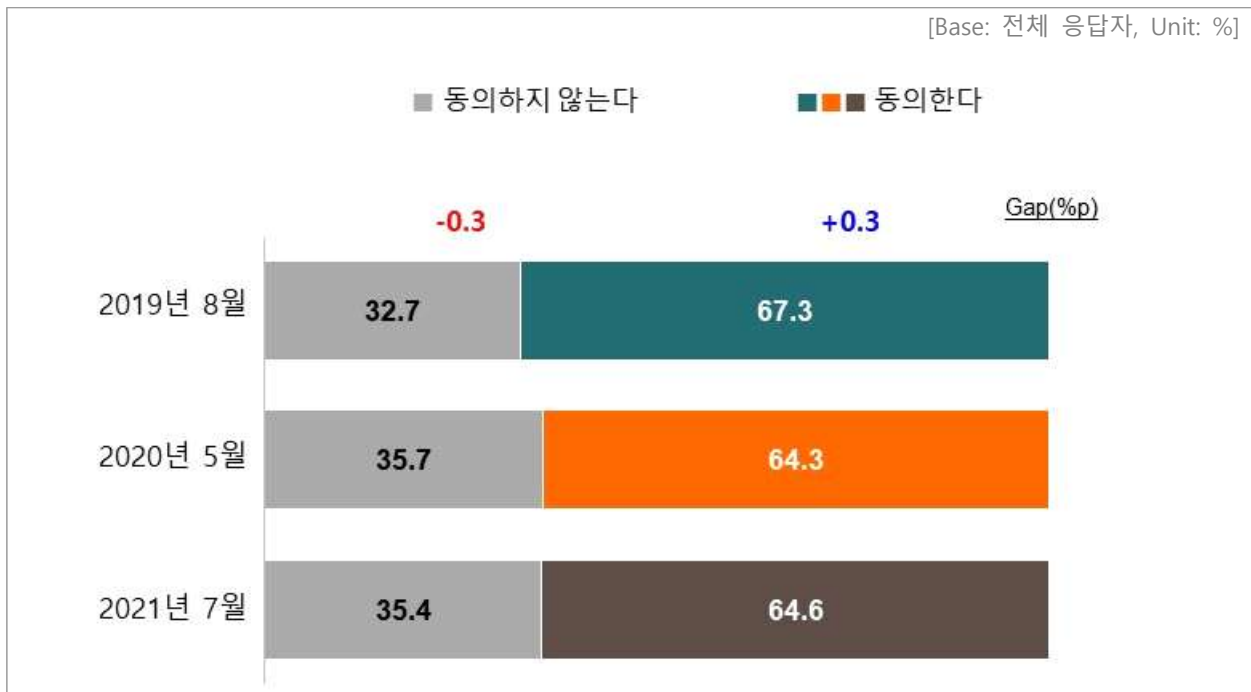
1.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5.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정도
6.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돌봄 등 서비스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 명칭
7.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타당성 정도

1.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1) 법적인 가족 개념

-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35.4%는 '동의하지 않는다', 64.6%는 '동의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70.1%)이 여성(59.0%)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남성, 자녀가 있는 응답자(69.9%),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1세대 가구(77.0%)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임
- 전년 대비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은 0.3%p 상승함. 성별로 남성의 동의 비중은 전년 대비 1.3%p 상승한 반면, 여성은 0.8%p 하락함. 연령별로 19-29세($\Delta 15.4\text{p}$)의 동의 비율 증가 폭이 가장 크며, 성·연령별로는 19-29세 남성($\Delta 17.0\text{p}$)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기 1) 법적인 가족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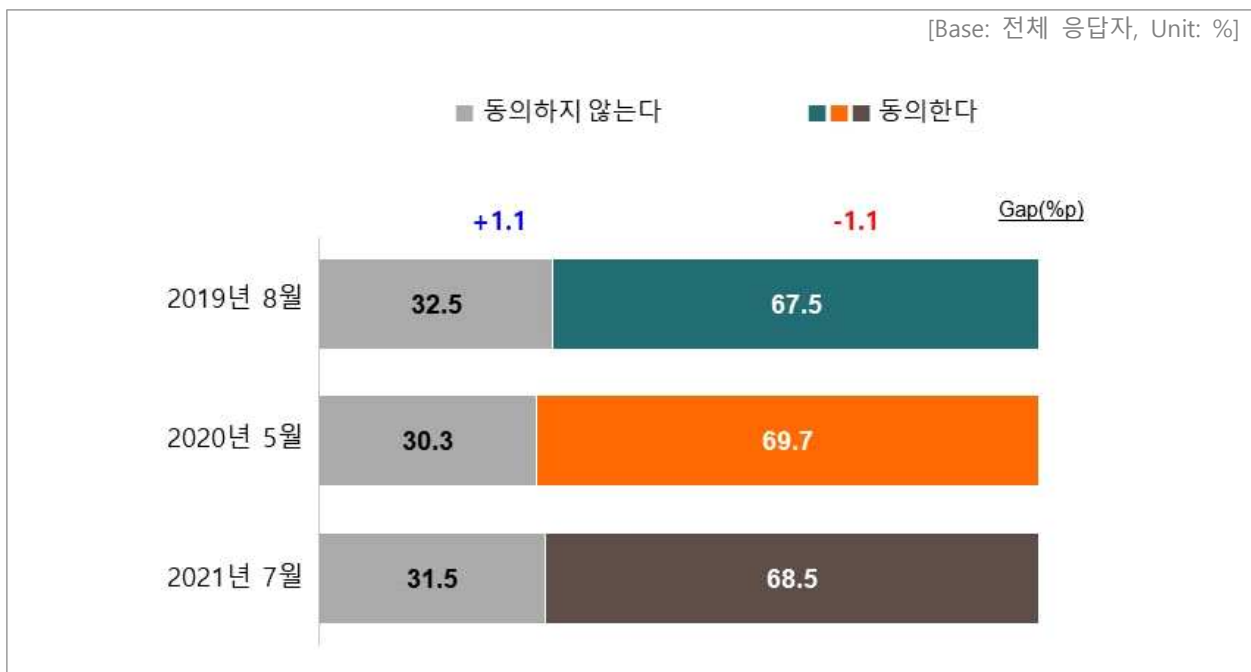
[표4] 1) 법적인 가족 개념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 전체 ■		(1500)	35.4	64.6
성별	남성	(756)	29.9	70.1
	여성	(744)	41.0	59.0
연령	19-29세	(262)	45.4	54.6
	30-39세	(243)	43.6	56.4
	40-49세	(294)	42.5	57.5
	50-59세	(311)	34.4	65.6
	60-69세	(254)	20.9	79.1
	70-79세	(136)	15.4	84.6
권역	수도권	(808)	38.4	61.6
	충청권	(153)	35.9	64.1
	경북권	(149)	28.9	71.1
	경남권	(229)	32.3	67.7
	전라권	(161)	30.4	69.6
혼인상태	미혼	(431)	46.6	53.4
	유배우	(982)	31.2	68.8
	이혼·별거	(44)	31.8	68.2
	사별	(40)	20.0	80.0
	기타	(3)	66.7	33.3
자녀유무	예	(1002)	30.1	69.9
	아니오	(498)	46.0	54.0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40.9	59.1
	중	(650)	35.2	64.8
	중하/하	(515)	32.0	68.0
세대 구성	1세대	(330)	23.0	77.0
	2세대	(918)	38.9	61.1
	3세대 이상	(58)	43.1	56.9
	1인 가구	(190)	37.4	62.6
	비혈연 가구	(4)	50.0	50.0

2) 생계와 주거 공유 개념

- 법적인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31.5%는 '동의하지 않는다', 68.5%는 '동의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72.6%)이 남성(64.6%)보다, 성·연령별로는 19-29세 여성(81.6%), 혼인상태가 미혼(71.2%)과 이혼·별거(72.7%), 세대 구성이 3세대 이상(79.3%)인 응답자에게서 동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의가 1.1%p 하락함. 연령별로는 19-29세(▽5.1%p)에서 하락 폭이 크며, 성·연령별로 70-79세 남성(▽14.0%p)과 50-59세 여성(▽10.1%p)에서 하락 폭이 큼

[그림8] 2) 생계와 주거 공유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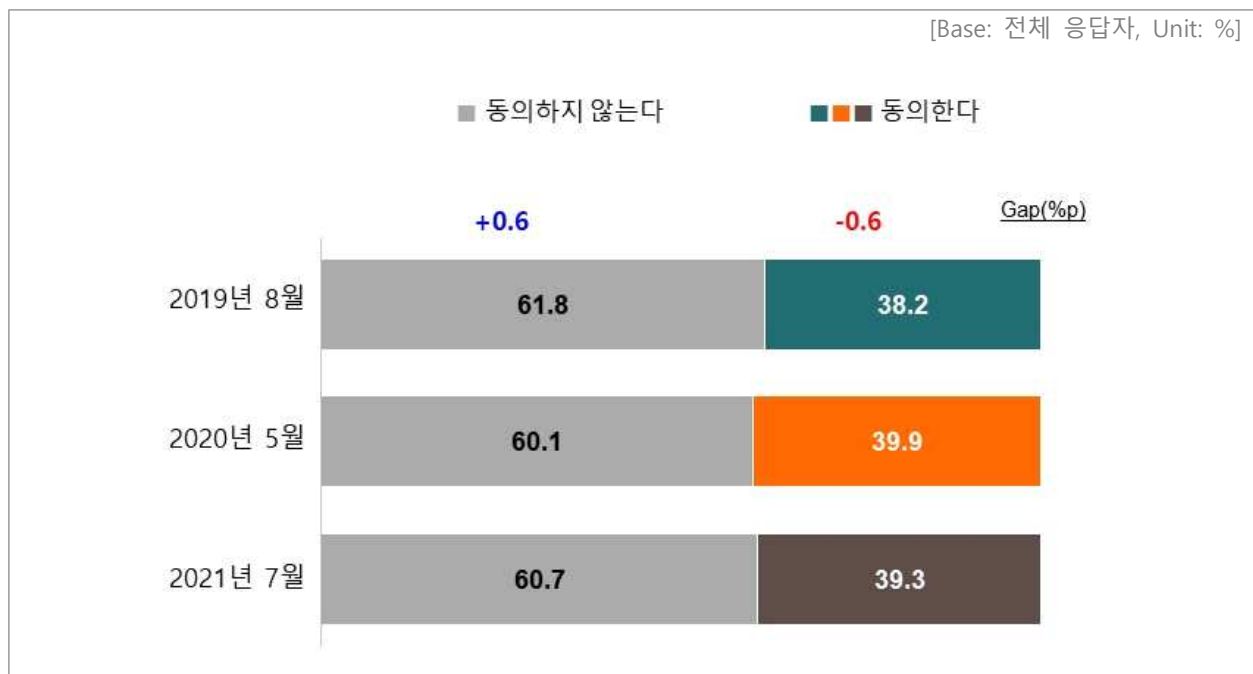
[표5] 2) 생계와 주거 공유 개념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 전체 ■		(1500)	31.5	68.5
성별	남성	(756)	35.4	64.6
	여성	(744)	27.4	72.6
연령	19-29세	(262)	27.1	72.9
	30-39세	(243)	31.3	68.7
	40-49세	(294)	25.5	74.5
	50-59세	(311)	30.9	69.1
	60-69세	(254)	38.6	61.4
	70-79세	(136)	41.2	58.8
권역	수도권	(808)	32.2	67.8
	충청권	(153)	30.7	69.3
	경북권	(149)	34.9	65.1
	경남권	(229)	27.5	72.5
	전라권	(161)	31.1	68.9
혼인상태	미혼	(431)	28.8	71.2
	유배우	(982)	32.5	67.5
	이혼·별거	(44)	27.3	72.7
	사별	(40)	42.5	57.5
	기타	(3)	0.0	100.0
자녀유무	예	(1002)	33.5	66.5
	아니오	(498)	27.3	72.7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31.3	68.7
	중	(650)	32.9	67.1
	중하/하	(515)	29.7	70.3
세대 구성	1세대	(330)	34.5	65.5
	2세대	(918)	30.0	70.0
	3세대 이상	(58)	20.7	79.3
	1인 가구	(190)	36.3	63.7
	비혈연 가구	(4)	50.0	50.0

3) 정서적 친밀성 관계 개념

-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60.7%는 '동의하지 않는다', 39.3%는 '동의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41.5%)이 남성(37.0%)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가 없는 응답자(44.6%),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유대와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응답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임
- 전년 대비 정서적 유대를 가진 관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의가 0.6%p 하락함. 연령별로는 19-29세 남성(▽11.2%p)과 70-79세 여성(▽11.7%p)에서 하락 폭이 큼

[그림9] 3) 정서적 친밀성 관계 개념



[표6] 3) 정서적 친밀성 관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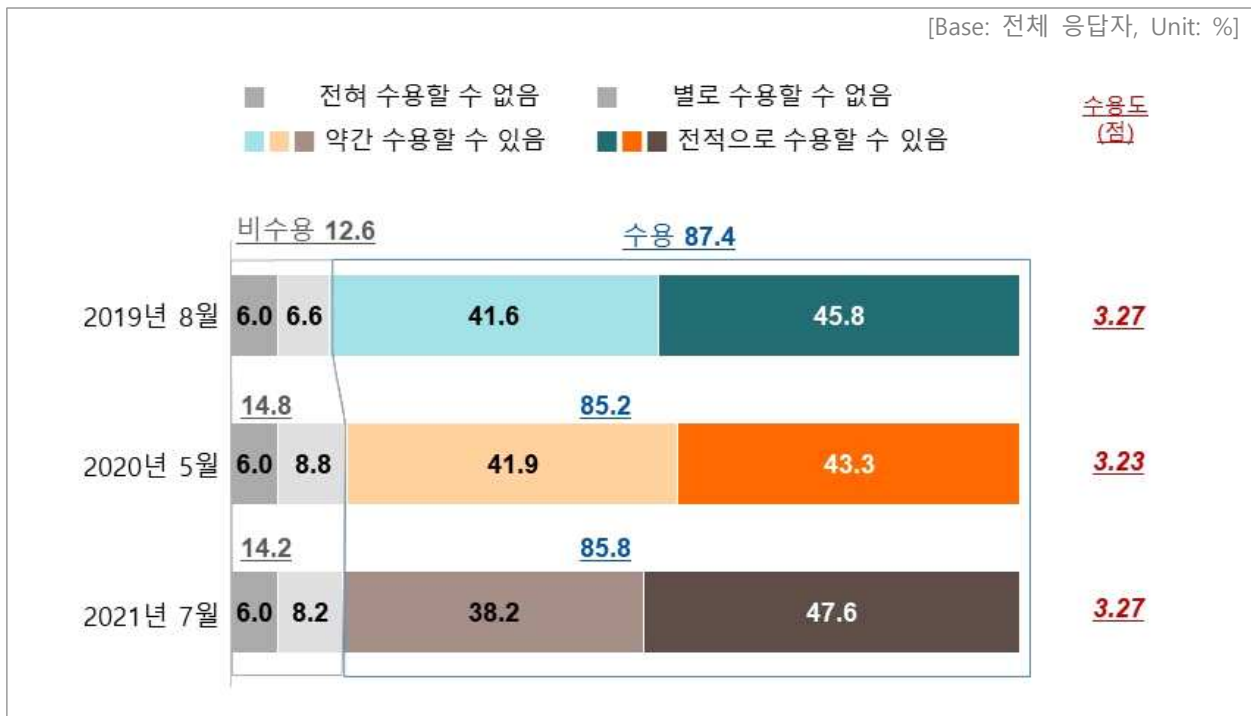
		사례수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 전체 ■		(1500)	60.7	39.3
성별	남성	(756)	63.0	37.0
	여성	(744)	58.5	41.5
연령	19-29세	(262)	49.2	50.8
	30-39세	(243)	58.4	41.6
	40-49세	(294)	59.5	40.5
	50-59세	(311)	63.3	36.7
	60-69세	(254)	66.5	33.5
	70-79세	(136)	72.8	27.2
권역	수도권	(808)	60.6	39.4
	충청권	(153)	61.4	38.6
	경북권	(149)	56.4	43.6
	경남권	(229)	63.8	36.2
	전라권	(161)	60.2	39.8
혼인상태	미혼	(431)	54.3	45.7
	유배우	(982)	63.1	36.9
	이혼·별거	(44)	59.1	40.9
	사별	(40)	75.0	25.0
	기타	(3)	33.3	66.7
자녀유무	예	(1002)	63.4	36.6
	아니오	(498)	55.4	44.6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57.0	43.0
	중	(650)	60.3	39.7
	중하/하	(515)	63.7	36.3
세대 구성	1세대	(330)	65.8	34.2
	2세대	(918)	58.7	41.3
	3세대 이상	(58)	58.6	41.4
	1인 가구	(190)	62.6	37.4
	비혈연 가구	(4)	50.0	50.0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1)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관련해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5.8%로 나타난 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 비중은 14.2%임
- 성별로 보면, 여성(87.4%)이 남성(84.3%)보다, 연령대가 40대 이하, 성연령별로 여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혼인상태가 미혼(92.1%), 자녀가 없는 응답자(92.6%),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수용도는 0.6%p 상승했으며, 성별로는 남성($\Delta 2.6$ p), 연령별로는 60-69세($\Delta 8.0$ p), 세대 구성이 3세대 이상($\Delta 10.2$ p)에서 수용도가 상승함

[그림10] 1)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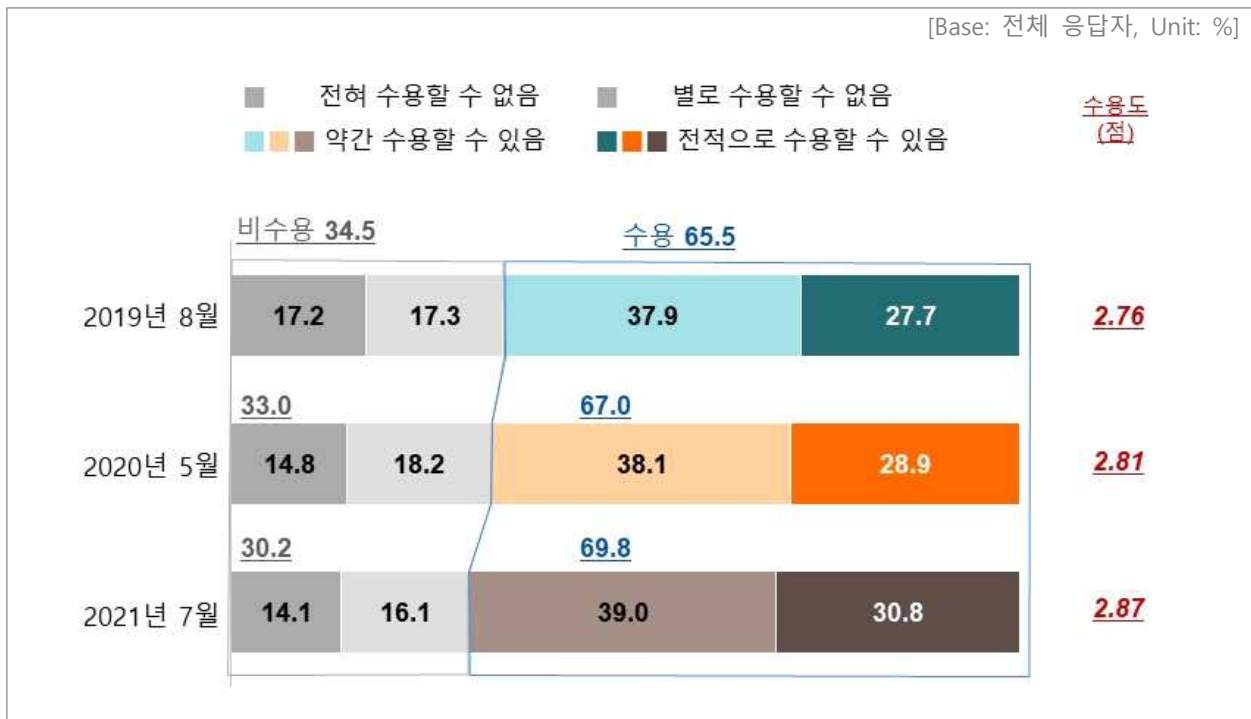
[표7] 1)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사례수	전혀 수용할 수 없음	별로 수용할 수 없음	약간 수용할 수 있음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비수용	수용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6.0	8.2	38.2	47.6	14.2	85.8	3.27
성별	남성	(756)	7.4	8.3	41.8	42.5	15.7	84.3	3.19
	여성	(744)	4.6	8.1	34.5	52.8	12.6	87.4	3.36
연령	19-29세	(262)	2.3	3.8	35.1	58.8	6.1	93.9	3.50
	30-39세	(243)	3.7	6.2	36.2	53.9	9.9	90.1	3.40
	40-49세	(294)	3.1	5.4	35.7	55.8	8.5	91.5	3.44
	50-59세	(311)	4.2	9.0	41.5	45.3	13.2	86.8	3.28
	60-69세	(254)	11.0	11.4	40.6	37.0	22.4	77.6	3.04
	70-79세	(136)	18.4	18.4	41.2	22.1	36.8	63.2	2.67
권역	수도권	(808)	5.3	7.4	36.9	50.4	12.7	87.3	3.32
	충청권	(153)	5.2	8.5	39.9	46.4	13.7	86.3	3.27
	경북권	(149)	8.1	9.4	37.6	45.0	17.4	82.6	3.19
	경남권	(229)	6.1	7.0	41.5	45.4	13.1	86.9	3.26
	전라권	(161)	8.1	12.4	39.1	40.4	20.5	79.5	3.12
혼인상태	미혼	(431)	3.9	3.9	33.4	58.7	7.9	92.1	3.47
	유배우	(982)	6.4	9.8	40.6	43.2	16.2	83.8	3.21
	이혼·별거	(44)	4.5	6.8	27.3	61.4	11.4	88.6	3.45
	사별	(40)	20.0	15.0	40.0	25.0	35.0	65.0	2.70
	기타	(3)	0.0	33.3	66.7	0.0	33.3	66.7	2.67
자녀유무	예	(1002)	7.1	10.5	40.2	42.2	17.6	82.4	3.18
	아니오	(498)	3.8	3.6	34.1	58.4	7.4	92.6	3.47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3.6	7.5	36.4	52.5	11.0	89.0	3.38
	중	(650)	5.8	7.8	37.7	48.6	13.7	86.3	3.29
	중하/하	(515)	7.8	9.1	40.0	43.1	16.9	83.1	3.18
세대 구성	1세대	(330)	9.1	11.5	41.2	38.2	20.6	79.4	3.08
	2세대	(918)	4.9	7.5	38.0	49.6	12.4	87.6	3.32
	3세대 이상	(58)	1.7	8.6	39.7	50.0	10.3	89.7	3.38
	1인 가구	(190)	7.4	5.8	33.2	53.7	13.2	86.8	3.33
	비혈연 가구	(4)	0.0	0.0	50.0	50.0	0.0	100.0	3.50

2)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69.8%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0.2%임
- 성별로는 남성(71.0%)이 여성(68.5%)보다, 혼인상태가 미혼(86.5%), 자녀가 없는 응답자(86.1%),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음
- 전년 대비 비혼 동거에 대한 수용도가 2.8%p 상승했으며, 성별로 여성($\Delta 4.3\text{p}$), 연령별로는 60대($\Delta 7.3\text{p}$), 성·연령별로는 60-69세 여성($\Delta 11.3\text{p}$), 1세대($\Delta 8.7\text{p}$) 가구 구성의 상승 폭이 큼

[그림11] 2)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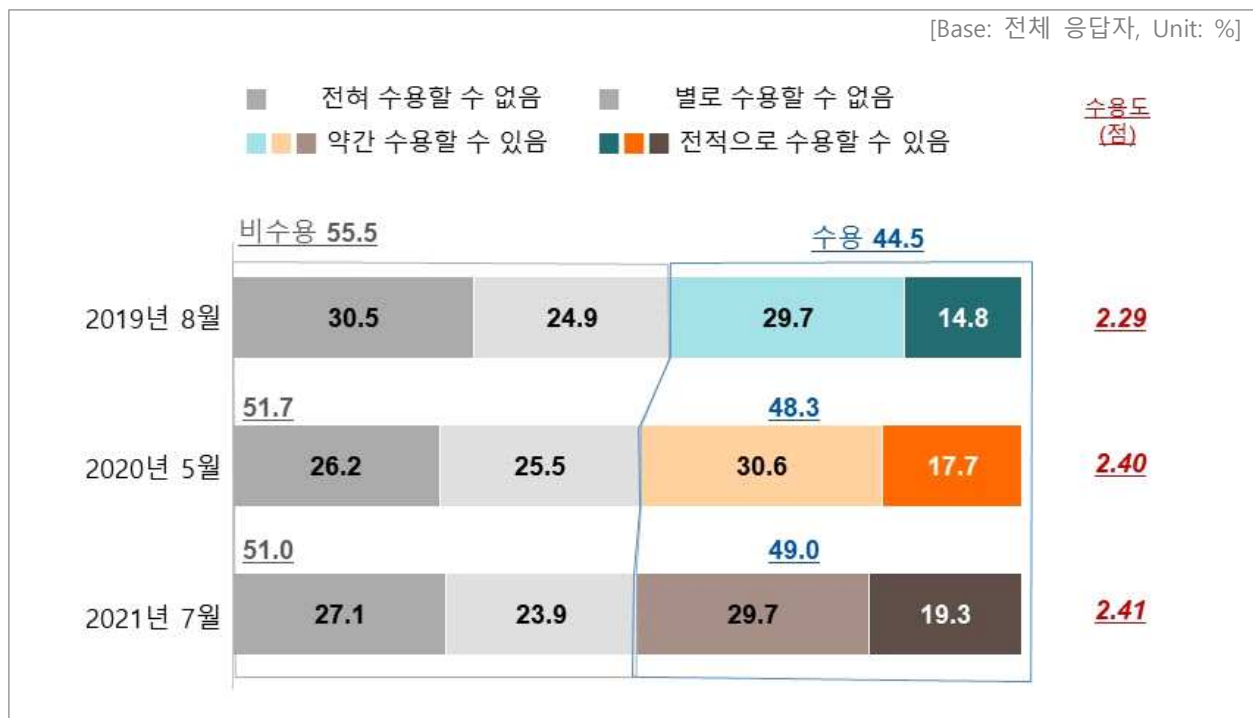
[표8] 2)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사례수	전혀 수용할 수 없음	별로 수용할 수 없음	약간 수용할 수 있음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비수용	수용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14.1	16.1	39.0	30.8	30.2	69.8	2.87
성별	남성	(756)	14.8	14.2	39.7	31.3	29.0	71.0	2.88
	여성	(744)	13.3	18.1	38.3	30.2	31.5	68.5	2.85
연령	19-29세	(262)	3.8	6.5	43.1	46.6	10.3	89.7	3.32
	30-39세	(243)	5.8	8.6	42.8	42.8	14.4	85.6	3.23
	40-49세	(294)	9.2	13.6	43.2	34.0	22.8	77.2	3.02
	50-59세	(311)	15.8	20.6	36.7	27.0	36.3	63.7	2.75
	60-69세	(254)	24.4	24.4	35.4	15.7	48.8	51.2	2.43
	70-79세	(136)	36.0	27.9	27.2	8.8	64.0	36.0	2.09
권역	수도권	(808)	13.6	16.2	37.7	32.4	29.8	70.2	2.89
	충청권	(153)	18.3	17.0	36.6	28.1	35.3	64.7	2.75
	경북권	(149)	16.8	15.4	36.2	31.5	32.2	67.8	2.83
	경남권	(229)	11.8	14.8	41.0	32.3	26.6	73.4	2.94
	전라권	(161)	13.0	17.4	47.2	22.4	30.4	69.6	2.79
혼인상태	미혼	(431)	5.6	7.9	42.5	44.1	13.5	86.5	3.25
	유배우	(982)	17.6	19.1	37.7	25.6	36.8	63.2	2.71
	이혼·별거	(44)	11.4	18.2	36.4	34.1	29.5	70.5	2.93
	사별	(40)	17.5	30.0	40.0	12.5	47.5	52.5	2.48
	기타	(3)	66.7	0.0	0.0	33.3	66.7	33.3	2.00
자녀유무	예	(1002)	18.2	20.2	38.1	23.6	38.3	61.7	2.67
	아니오	(498)	5.8	8.0	40.8	45.4	13.9	86.1	3.26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13.4	14.3	37.3	34.9	27.8	72.2	2.94
	중	(650)	14.8	15.7	37.8	31.7	30.5	69.5	2.86
	중하/하	(515)	13.6	17.9	41.6	27.0	31.5	68.5	2.82
세대 구성	1세대	(330)	23.3	21.8	33.0	21.8	45.2	54.8	2.53
	2세대	(918)	11.4	14.1	41.4	33.1	25.5	74.5	2.96
	3세대 이상	(58)	8.6	25.9	27.6	37.9	34.5	65.5	2.95
	1인 가구	(190)	12.6	13.7	42.1	31.6	26.3	73.7	2.93
	비혈연 가구	(4)	0.0	0.0	0.0	100.0	0.0	100.0	4.00

3)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 응답자의 49.0%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1.0%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 여성(50.8%)이 남성(47.2%)보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53.6%), 세대 구성이 1인 가구(54.2%)에게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수용이 높음
- 전년 대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0.7%p 상승했으며, 성별로는 여성(△3.8%p), 연령별로는 60대(△8.0%p)에서 수용도의 상승 폭이 큼

[그림12] 3)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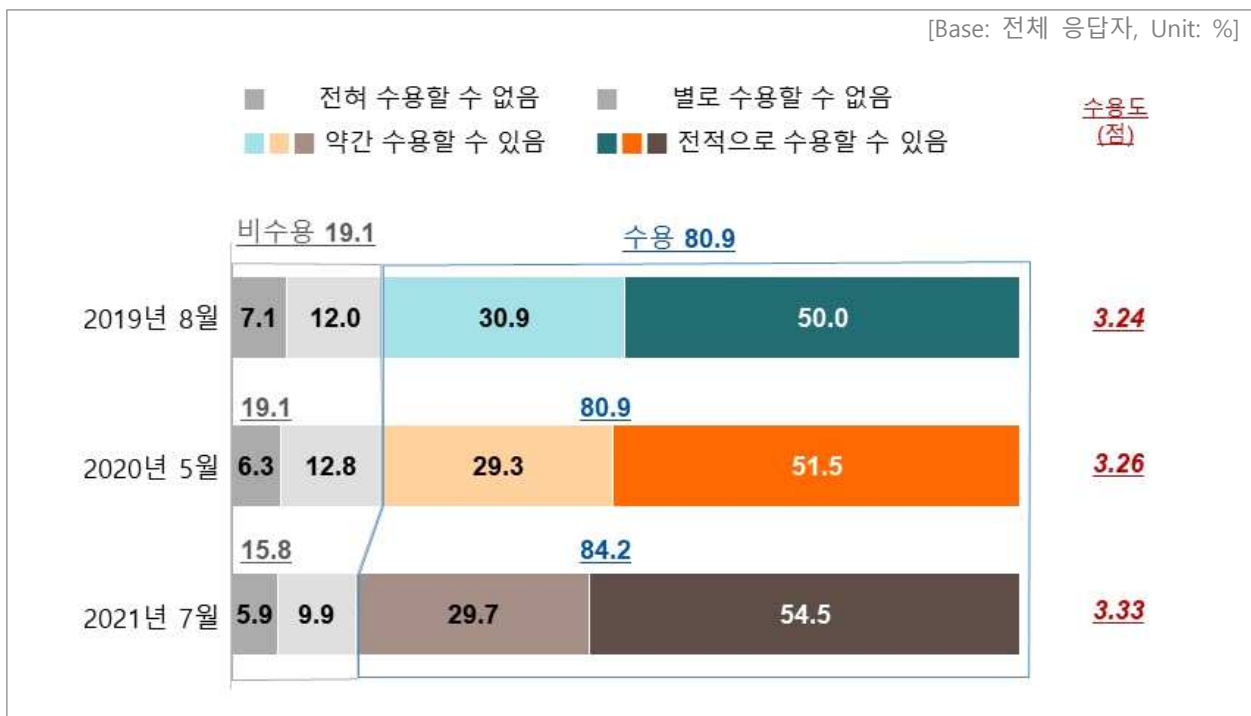
[표9] 3)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사례수	전혀 수용할 수 없음	별로 수용할 수 없음	약간 수용할 수 있음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비수용	수용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27.1	23.9	29.7	19.3	51.0	49.0	2.41
성별	남성	(756)	29.6	23.1	29.4	17.9	52.8	47.2	2.35
	여성	(744)	24.5	24.7	30.1	20.7	49.2	50.8	2.47
연령	19-29세	(262)	21.8	24.0	30.9	23.3	45.8	54.2	2.56
	30-39세	(243)	24.7	24.7	29.6	21.0	49.4	50.6	2.47
	40-49세	(294)	24.8	20.7	32.0	22.4	45.6	54.4	2.52
	50-59세	(311)	27.3	26.4	25.4	20.9	53.7	46.3	2.40
	60-69세	(254)	31.1	25.2	30.7	13.0	56.3	43.7	2.26
	70-79세	(136)	38.2	21.3	30.9	9.6	59.6	40.4	2.12
권역	수도권	(808)	25.0	25.2	29.8	19.9	50.2	49.8	2.45
	충청권	(153)	28.8	26.1	26.8	18.3	54.9	45.1	2.35
	경북권	(149)	32.9	19.5	26.8	20.8	52.3	47.7	2.36
	경남권	(229)	29.7	21.0	31.0	18.3	50.7	49.3	2.38
	전라권	(161)	26.7	23.6	32.9	16.8	50.3	49.7	2.40
혼인상태	미혼	(431)	22.5	24.1	29.7	23.7	46.6	53.4	2.55
	유배우	(982)	29.0	24.0	29.3	17.6	53.1	46.9	2.36
	이혼·별거	(44)	22.7	25.0	34.1	18.2	47.7	52.3	2.48
	사별	(40)	30.0	20.0	35.0	15.0	50.0	50.0	2.35
	기타	(3)	66.7	0.0	33.3	0.0	66.7	33.3	1.67
자녀유무	예	(1002)	29.0	24.3	29.8	16.9	53.3	46.7	2.35
	아니오	(498)	23.1	23.3	29.5	24.1	46.4	53.6	2.55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28.7	24.2	26.6	20.6	52.8	47.2	2.39
	중	(650)	26.2	23.1	31.2	19.5	49.2	50.8	2.44
	중하/하	(515)	27.2	24.9	29.9	18.1	52.0	48.0	2.39
세대 구성	1세대	(330)	31.5	25.2	29.1	14.2	56.7	43.3	2.26
	2세대	(918)	26.4	23.7	29.8	20.0	50.1	49.9	2.44
	3세대 이상	(58)	22.4	27.6	27.6	22.4	50.0	50.0	2.50
	1인 가구	(190)	23.7	22.1	31.1	23.2	45.8	54.2	2.54
	비혈연 가구	(4)	50.0	0.0	25.0	25.0	50.0	50.0	2.25

4)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 응답자의 84.2%가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15.8%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여성(88.4%)이 남성(80.0%)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혼인상태가 미혼(95.6%), 자녀가 없는 응답자(95.6%),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세대 구성이 2세대(88.1%)와 1인 가구(87.9%)에서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수용 비중이 높음
- 전년 대비 수용 비중은 3.3%p 상승했으며, 성별로는 남성($\Delta 4.9\text{p}$), 성·연령별로는 50-59세 남성($\Delta 10.5\text{p}$)와 70-79세 남성($\Delta 10.3\text{p}$)에서 수용도 상승 폭이 큼

[그림13] 4)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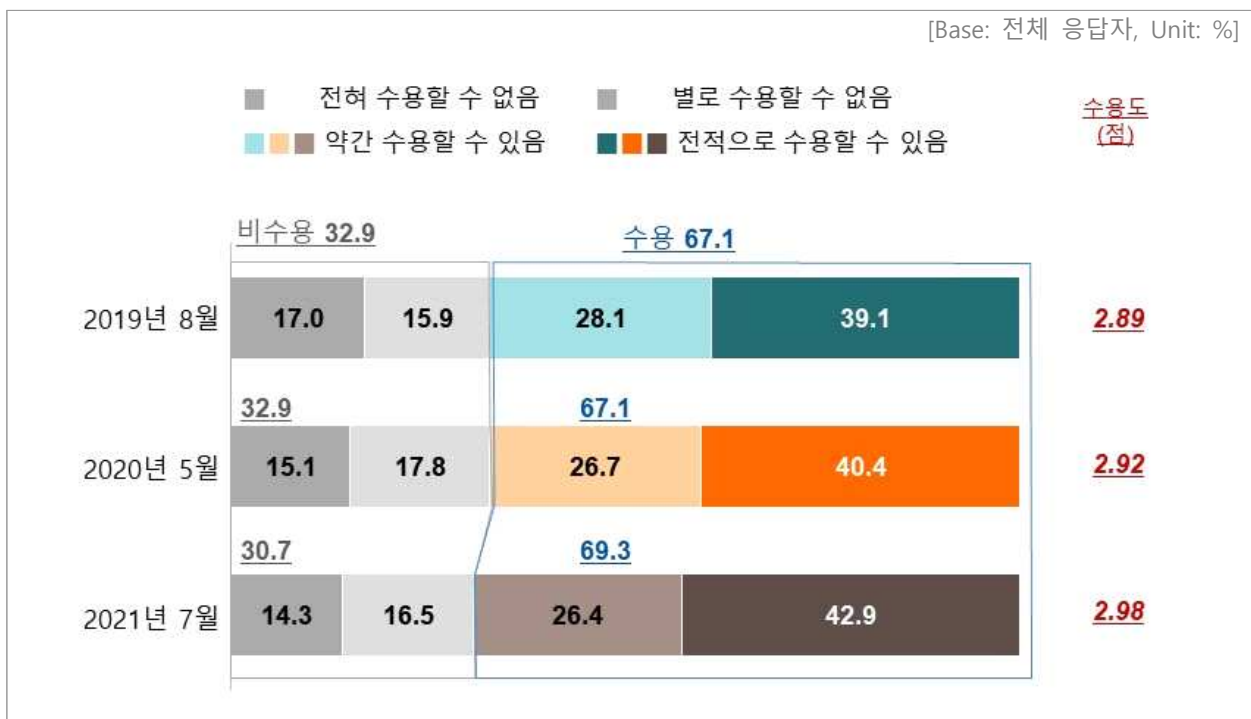
[표10] 4)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사례수	전혀 수용할 수 없음	별로 수용할 수 없음	약간 수용할 수 있음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비수용	수용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5.9	9.9	29.7	54.5	15.8	84.2	3.33
성별	남성	(756)	8.1	11.9	30.7	49.3	20.0	80.0	3.21
	여성	(744)	3.8	7.8	28.8	59.7	11.6	88.4	3.44
연령	19-29세	(262)	1.1	3.4	15.6	79.8	4.6	95.4	3.74
	30-39세	(243)	2.5	2.9	21.4	73.3	5.3	94.7	3.65
	40-49세	(294)	3.4	8.5	30.6	57.5	11.9	88.1	3.42
	50-59세	(311)	5.8	9.3	37.6	47.3	15.1	84.9	3.26
	60-69세	(254)	12.6	18.9	34.3	34.3	31.5	68.5	2.90
	70-79세	(136)	14.7	22.1	43.4	19.9	36.8	63.2	2.68
권역	수도권	(808)	4.6	8.7	27.6	59.2	13.2	86.8	3.41
	충청권	(153)	6.5	10.5	27.5	55.6	17.0	83.0	3.32
	경북권	(149)	6.7	9.4	34.9	49.0	16.1	83.9	3.26
	경남권	(229)	7.9	8.7	33.6	49.8	16.6	83.4	3.25
	전라권	(161)	8.7	17.4	32.3	41.6	26.1	73.9	3.07
혼인상태	미혼	(431)	1.9	2.6	16.5	79.1	4.4	95.6	3.73
	유배우	(982)	7.4	12.6	35.5	44.4	20.1	79.9	3.17
	이혼·별거	(44)	6.8	9.1	31.8	52.3	15.9	84.1	3.30
	사별	(40)	12.5	22.5	30.0	35.0	35.0	65.0	2.88
	기타	(3)	0.0	0.0	0.0	100.0	0.0	100.0	4.00
자녀유무	예	(1002)	8.1	13.4	35.8	42.7	21.5	78.5	3.13
	아니오	(498)	1.6	2.8	17.5	78.1	4.4	95.6	3.72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3.6	7.8	31.3	57.3	11.3	88.7	3.42
	중	(650)	6.5	9.1	29.4	55.1	15.5	84.5	3.33
	중하/하	(515)	6.8	12.2	29.1	51.8	19.0	81.0	3.26
세대 구성	1세대	(330)	11.8	16.4	33.0	38.8	28.2	71.8	2.99
	2세대	(918)	4.0	7.8	29.1	59.0	11.9	88.1	3.43
	3세대 이상	(58)	5.2	13.8	31.0	50.0	19.0	81.0	3.26
	1인 가구	(190)	5.3	6.8	26.8	61.1	12.1	87.9	3.44
	비혈연 가구	(4)	0.0	25.0	25.0	50.0	25.0	75.0	3.25

5)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 응답자의 69.3%가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30.7%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여성(75.0%)이 남성(63.6%)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혼인상태가 미혼(90.0%), 자녀가 없는 응답자(89.6%),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수용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전년 대비 수용 비중은 2.1%p 상승했으며, 성별로는 여성($\Delta 4.7\text{p}$), 연령별로는 70대($\Delta 12.5\text{p}$), 성·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여성, 세대 구성이 3세대 이상($\Delta 12.4\text{p}$)인 응답자에게서 수용도가 상승함

[그림14] 5)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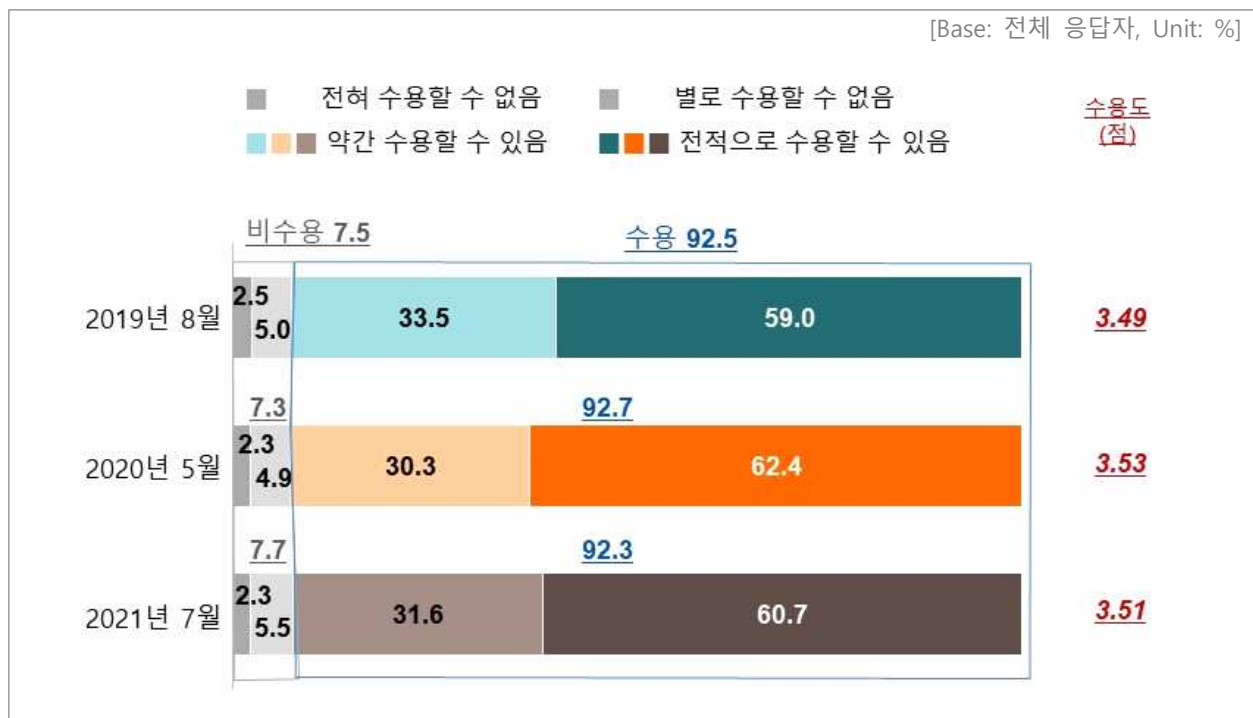
[표11] 5)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사례수	전혀 수용할 수 없음	별로 수용할 수 없음	약간 수용할 수 있음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비수용	수용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14.3	16.5	26.4	42.9	30.7	69.3	2.98
성별	남성	(756)	18.4	18.0	27.4	36.2	36.4	63.6	2.81
	여성	(744)	10.1	14.9	25.4	49.6	25.0	75.0	3.15
연령	19-29세	(262)	2.7	4.6	21.4	71.4	7.3	92.7	3.61
	30-39세	(243)	5.8	5.8	22.2	66.3	11.5	88.5	3.49
	40-49세	(294)	5.4	17.0	27.2	50.3	22.4	77.6	3.22
	50-59세	(311)	13.8	22.5	33.1	30.5	36.3	63.7	2.80
	60-69세	(254)	33.1	25.6	25.6	15.7	58.7	41.3	2.24
	70-79세	(136)	36.8	26.5	27.9	8.8	63.2	36.8	2.09
권역	수도권	(808)	12.7	14.7	26.0	46.5	27.5	72.5	3.06
	충청권	(153)	14.4	20.3	26.8	38.6	34.6	65.4	2.90
	경북권	(149)	16.1	16.8	28.2	38.9	32.9	67.1	2.90
	경남권	(229)	14.4	17.5	27.5	40.6	31.9	68.1	2.94
	전라권	(161)	19.9	19.9	24.8	35.4	39.8	60.2	2.76
혼인상태	미혼	(431)	4.2	5.8	21.8	68.2	10.0	90.0	3.54
	유배우	(982)	17.3	20.5	28.6	33.6	37.8	62.2	2.79
	이혼·별거	(44)	22.7	25.0	31.8	20.5	47.7	52.3	2.50
	사별	(40)	40.0	25.0	15.0	20.0	65.0	35.0	2.15
	기타	(3)	0.0	0.0	33.3	66.7	0.0	100.0	3.67
자녀유무	예	(1002)	19.2	21.7	28.6	30.5	40.8	59.2	2.71
	아니오	(498)	4.4	6.0	21.9	67.7	10.4	89.6	3.53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13.1	11.6	27.5	47.8	24.8	75.2	3.10
	중	(650)	14.2	17.2	24.2	44.5	31.4	68.6	2.99
	중하/하	(515)	15.1	18.6	28.5	37.7	33.8	66.2	2.89
세대 구성	1세대	(330)	24.2	23.0	25.5	27.3	47.3	52.7	2.56
	2세대	(918)	10.2	14.1	27.8	47.9	24.3	75.7	3.13
	3세대 이상	(58)	13.8	19.0	20.7	46.6	32.8	67.2	3.00
	1인 가구	(190)	16.3	15.8	23.7	44.2	32.1	67.9	2.96
	비혈연 가구	(4)	25.0	25.0	0.0	50.0	50.0	50.0	2.75

6)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 응답자의 92.3%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7.7%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94.2%)이 여성(90.3%)보다, 연령대는 40대 이하에서, 혼인상태가 미혼(96.3%), 자녀가 없는 응답자(96.6%)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수용 비중이 높은 편임
- 전년 대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수용도는 0.5%p 하락함. 성·연령별로 50대 남성(△8.4%p)은 수용도가 큰 폭 상승한 반면, 50대 여성(▽7.0%p)은 큰 폭 하락함

[그림15] 6)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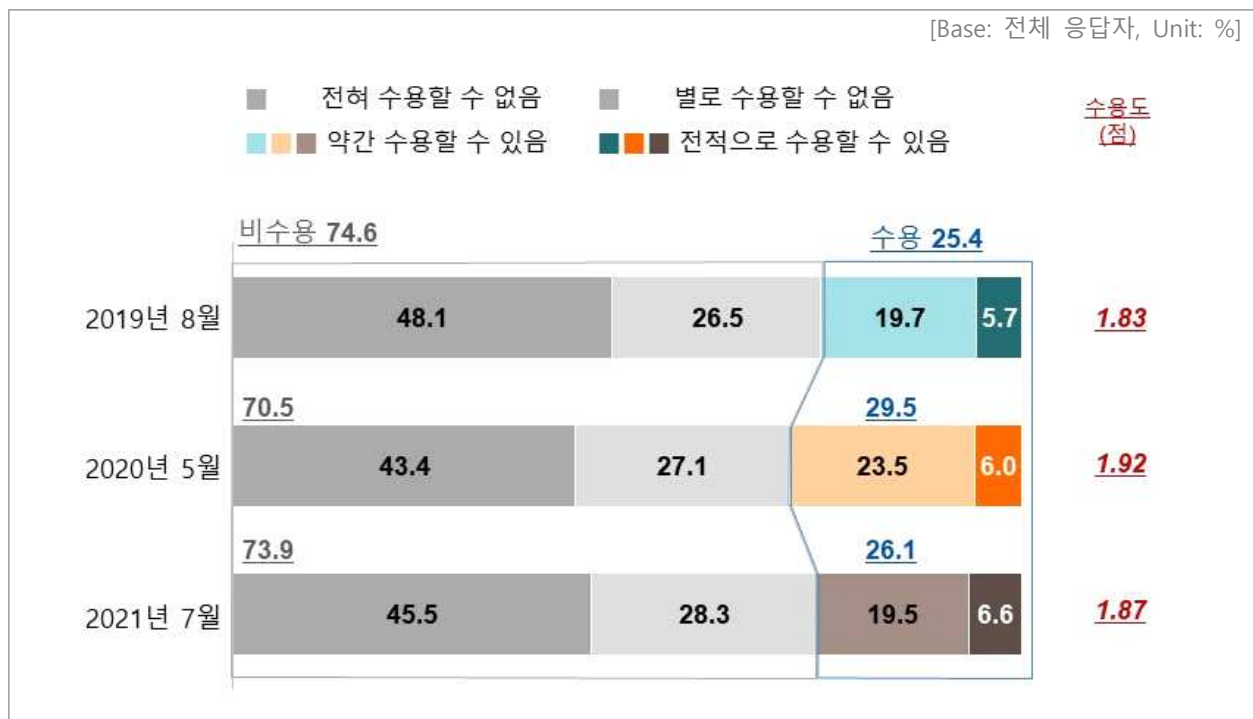
[표 12] 6)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사례수	전혀 수용할 수 없음	별로 수용할 수 없음	약간 수용할 수 있음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비수용	수용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2.3	5.5	31.6	60.7	7.7	92.3	3.51
성별	남성	(756)	1.6	4.2	34.3	59.9	5.8	94.2	3.53
	여성	(744)	3.0	6.7	28.9	61.4	9.7	90.3	3.49
연령	19-29세	(262)	0.0	3.1	17.6	79.4	3.1	96.9	3.76
	30-39세	(243)	.4	2.5	21.4	75.7	2.9	97.1	3.72
	40-49세	(294)	1.4	4.1	26.2	68.4	5.4	94.6	3.62
	50-59세	(311)	2.9	7.4	37.6	52.1	10.3	89.7	3.39
	60-69세	(254)	3.9	7.9	44.1	44.1	11.8	88.2	3.28
	70-79세	(136)	7.4	9.6	51.5	31.6	16.9	83.1	3.07
권역	수도권	(808)	2.2	4.7	29.1	64.0	6.9	93.1	3.55
	충청권	(153)	2.0	7.2	35.9	54.9	9.2	90.8	3.44
	경북권	(149)	1.3	9.4	31.5	57.7	10.7	89.3	3.46
	경남권	(229)	2.6	5.7	31.4	60.3	8.3	91.7	3.49
	전라권	(161)	3.1	3.7	40.4	52.8	6.8	93.2	3.43
혼인상태	미혼	(431)	.5	3.2	20.0	76.3	3.7	96.3	3.72
	유배우	(982)	2.7	6.3	35.5	55.4	9.1	90.9	3.44
	이혼·별거	(44)	4.5	6.8	43.2	45.5	11.4	88.6	3.30
	사별	(40)	7.5	7.5	47.5	37.5	15.0	85.0	3.15
	기타	(3)	0.0	0.0	33.3	66.7	0.0	100.0	3.67
자녀유무	예	(1002)	3.1	6.8	37.5	52.6	9.9	90.1	3.40
	아니오	(498)	.6	2.8	19.7	76.9	3.4	96.6	3.73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1.5	4.2	25.4	69.0	5.7	94.3	3.62
	중	(650)	2.9	4.3	32.0	60.8	7.2	92.8	3.51
	중하/하	(515)	1.9	7.8	35.1	55.1	9.7	90.3	3.43
세대 구성	1세대	(330)	3.6	7.3	40.0	49.1	10.9	89.1	3.35
	2세대	(918)	1.7	4.9	28.9	64.5	6.6	93.4	3.56
	3세대 이상	(58)	1.7	8.6	24.1	65.5	10.3	89.7	3.53
	1인 가구	(190)	2.6	3.7	32.6	61.1	6.3	93.7	3.52
	비혈연 가구	(4)	0.0	25.0	25.0	50.0	25.0	75.0	3.25

7)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 응답자의 26.1%가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73.9%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함
- 성별 간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연령대가 19-29세(49.6%), 혼인상태가 미혼(39.9%), 자녀가 없는 응답자(38.2%), 세대 구성이 1인 가구(33.7%)에서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수용 비중이 높은 편임
- 전년 대비 미성년의 자녀 출산에 대한 수용도가 3.3%p 하락했으며, 성별로는 남성(▽5.6%p), 연령별로는 30대(▽7.4%p)와 70대(▽9.6%p), 성·연령별로는 70대 여성(▽13.2%p), 경제적 생활 수준이 상/중상(▽5.9%p)인 응답자 층에서 수용도 하락 폭이 큼

[그림16] 7)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표13] 7)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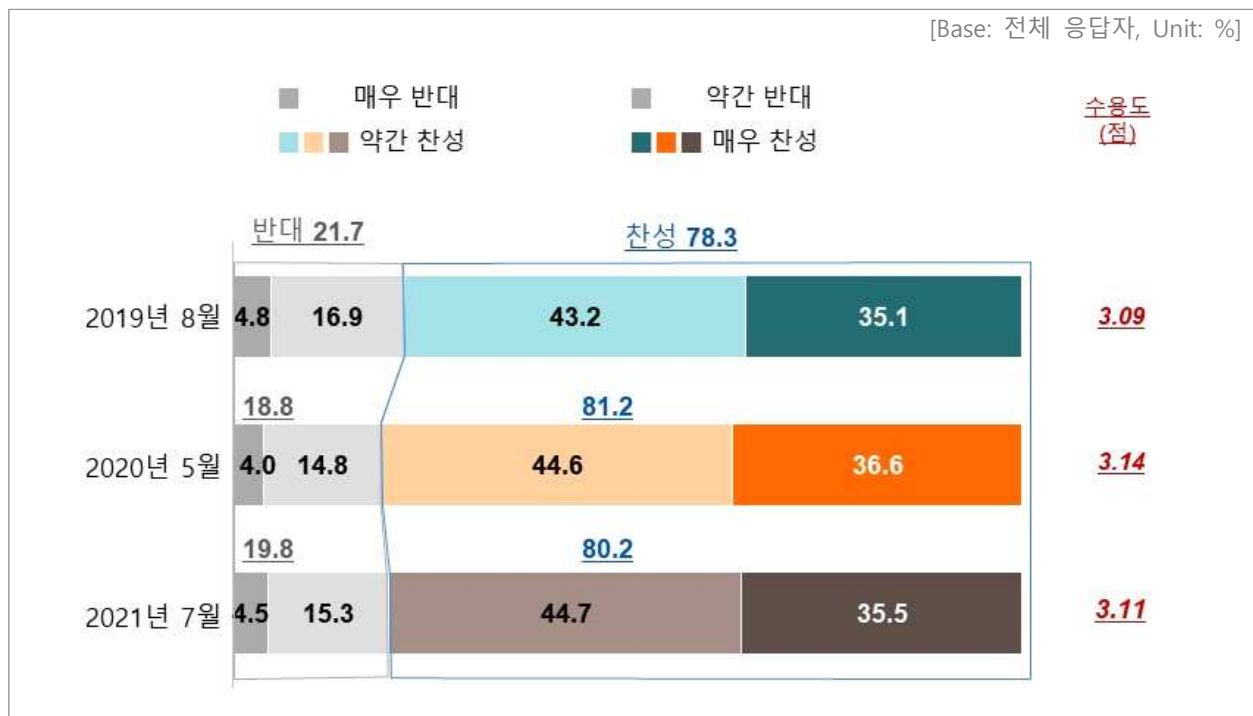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수용할 수 없음	별로 수용할 수 없음	약간 수용할 수 있음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비수용	수용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45.5	28.3	19.5	6.6	73.9	26.1	1.87
성별	남성	(756)	47.0	27.0	20.1	6.0	73.9	26.1	1.85
	여성	(744)	44.1	29.7	19.0	7.3	73.8	26.2	1.89
연령	19-29세	(262)	19.8	30.5	36.6	13.0	50.4	49.6	2.43
	30-39세	(243)	37.4	32.9	23.5	6.2	70.4	29.6	1.98
	40-49세	(294)	51.4	29.3	15.0	4.4	80.6	19.4	1.72
	50-59세	(311)	54.7	28.9	11.3	5.1	83.6	16.4	1.67
	60-69세	(254)	54.7	22.4	16.9	5.9	77.2	22.8	1.74
	70-79세	(136)	58.8	23.5	13.2	4.4	82.4	17.6	1.63
권역	수도권	(808)	43.1	30.1	19.7	7.2	73.1	26.9	1.91
	충청권	(153)	54.2	25.5	15.7	4.6	79.7	20.3	1.71
	경북권	(149)	45.0	30.9	16.8	7.4	75.8	24.2	1.87
	경남권	(229)	46.3	28.8	20.5	4.4	75.1	24.9	1.83
	전라권	(161)	49.1	19.3	23.6	8.1	68.3	31.7	1.91
혼인상태	미혼	(431)	28.5	31.6	29.5	10.4	60.1	39.9	2.22
	유배우	(982)	52.2	27.2	15.8	4.8	79.4	20.6	1.73
	이혼·별거	(44)	63.6	20.5	6.8	9.1	84.1	15.9	1.61
	사별	(40)	42.5	32.5	17.5	7.5	75.0	25.0	1.90
	기타	(3)	66.7	0.0	33.3	0.0	66.7	33.3	1.67
자녀유무	예	(1002)	53.0	26.8	15.0	5.2	79.8	20.2	1.72
	아니오	(498)	30.5	31.3	28.7	9.4	61.8	38.2	2.17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47.2	27.2	18.8	6.9	74.3	25.7	1.85
	중	(650)	45.1	26.9	21.7	6.3	72.0	28.0	1.89
	중하/하	(515)	45.0	30.9	17.3	6.8	75.9	24.1	1.86
세대 구성	1세대	(330)	55.2	23.9	16.1	4.8	79.1	20.9	1.71
	2세대	(918)	43.4	30.3	19.3	7.1	73.6	26.4	1.90
	3세대 이상	(58)	43.1	29.3	22.4	5.2	72.4	27.6	1.90
	1인 가구	(190)	39.5	26.8	25.8	7.9	66.3	33.7	2.02
	비혈연 가구	(4)	75.0	0.0	25.0	0.0	75.0	25.0	1.50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1) 한부모 가족의 자녀

- 응답자의 80.2%가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 가족이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것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19.8%는 반대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남성(81.5%)이 여성(78.9%)보다, 연령별로는 19-29세(89.7%), 자녀가 없는 응답자(85.7%),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세대 구성이 1인 가구(84.2%)에서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음
- 전년 대비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는 1.0%p 하락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4.6%p), 성·연령별로 50대 여성(▽12.1%p)에서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가 큰 폭 하락함

[그림17] 1) 한부모 가족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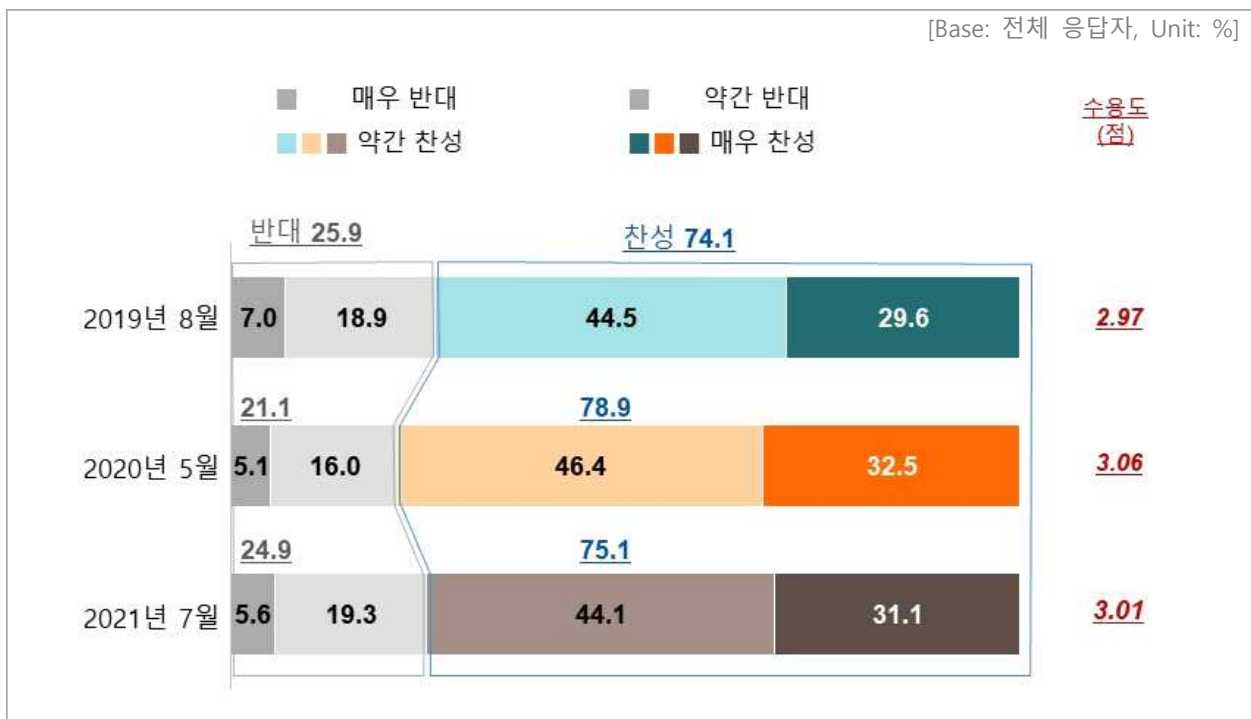
[표14] 1) 한부모 가족의 자녀

		사례수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반대	찬성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4.5	15.3	44.7	35.5	19.8	80.2	3.11
성별	남성	(756)	4.4	14.2	45.6	35.8	18.5	81.5	3.13
	여성	(744)	4.6	16.5	43.8	35.1	21.1	78.9	3.09
연령	19-29세	(262)	2.7	7.6	41.2	48.5	10.3	89.7	3.35
	30-39세	(243)	4.1	18.5	42.0	35.4	22.6	77.4	3.09
	40-49세	(294)	4.4	17.7	42.5	35.4	22.1	77.9	3.09
	50-59세	(311)	4.2	18.6	47.3	29.9	22.8	77.2	3.03
	60-69세	(254)	5.5	14.2	48.0	32.3	19.7	80.3	3.07
	70-79세	(136)	7.4	14.0	49.3	29.4	21.3	78.7	3.01
권역	수도권	(808)	4.5	13.7	45.3	36.5	18.2	81.8	3.14
	충청권	(153)	3.9	13.7	43.8	38.6	17.6	82.4	3.17
	경북권	(149)	4.7	17.4	44.3	33.6	22.1	77.9	3.07
	경남권	(229)	4.4	17.5	47.2	31.0	21.8	78.2	3.05
	전라권	(161)	5.0	19.9	39.8	35.4	24.8	75.2	3.06
혼인상태	미혼	(431)	3.2	11.1	40.8	44.8	14.4	85.6	3.27
	유배우	(982)	4.9	17.4	46.2	31.5	22.3	77.7	3.04
	이혼·별거	(44)	4.5	6.8	52.3	36.4	11.4	88.6	3.20
	사별	(40)	7.5	17.5	42.5	32.5	25.0	75.0	3.00
	기타	(3)	0.0	33.3	33.3	33.3	33.3	66.7	3.00
자녀유무	예	(1002)	5.0	17.6	46.4	31.0	22.6	77.4	3.03
	아니오	(498)	3.4	10.8	41.4	44.4	14.3	85.7	3.27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4.5	16.1	43.3	36.1	20.6	79.4	3.11
	중	(650)	4.8	17.1	44.8	33.4	21.8	78.2	3.07
	중하/하	(515)	4.1	12.6	45.6	37.7	16.7	83.3	3.17
세대 구성	1세대	(330)	6.7	15.2	45.8	32.4	21.8	78.2	3.04
	2세대	(918)	4.0	15.8	44.9	35.3	19.8	80.2	3.11
	3세대 이상	(58)	1.7	20.7	39.7	37.9	22.4	77.6	3.14
	1인 가구	(190)	3.7	12.1	43.7	40.5	15.8	84.2	3.21
	비혈연 가구	(4)	0.0	0.0	50.0	50.0	0.0	100.0	3.50

2) 재혼 가족의 자녀

- 응답자의 75.1%가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의 가족의 형태가 '재혼 가족의 자녀'인 것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24.9%는 반대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남성(78.3%)이 여성(71.9%)보다, 연령별로는 19-29세(88.5%), 혼인상태가 미혼(84.0%), 자녀가 없는 응답자(83.7%)에서 재혼 가족의 자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재혼 가족의 자녀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가 3.8%p 하락했으며, 성별로는 여성(▽4.9%p), 연령별로는 30대(▽8.5%p), 성·연령별로는 30대 남성(▽10.1%p)와 50대 여성(▽8.8%p) 응답자에게서 재혼 가족의 자녀에 대한 수용도 하락 폭이 큼. 반면, 혼인상태가 이혼별거(△17.1%)인 응답자는 재혼 가족의 자녀에 대한 수용도가 큰 폭 상승함

[그림18] 2) 재혼 가족의 자녀



[표15] 2) 재혼 가족의 자녀

		사례수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반대	찬성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5.6	19.3	44.1	31.1	24.9	75.1	3.01
성별	남성	(756)	5.0	16.7	48.0	30.3	21.7	78.3	3.04
	여성	(744)	6.2	21.9	40.1	31.9	28.1	71.9	2.98
연령	19-29세	(262)	.8	10.7	40.5	48.1	11.5	88.5	3.36
	30-39세	(243)	5.3	18.5	41.2	35.0	23.9	76.1	3.06
	40-49세	(294)	4.8	19.0	46.3	29.9	23.8	76.2	3.01
	50-59세	(311)	5.5	23.5	44.4	26.7	28.9	71.1	2.92
	60-69세	(254)	9.4	23.2	45.7	21.7	32.7	67.3	2.80
	70-79세	(136)	10.3	20.6	47.8	21.3	30.9	69.1	2.80
권역	수도권	(808)	5.9	17.8	43.6	32.7	23.8	76.2	3.03
	충청권	(153)	3.9	15.7	47.1	33.3	19.6	80.4	3.10
	경북권	(149)	7.4	22.8	40.3	29.5	30.2	69.8	2.92
	경남권	(229)	4.4	23.1	43.2	29.3	27.5	72.5	2.97
	전라권	(161)	5.6	21.1	48.4	24.8	26.7	73.3	2.93
혼인상태	미혼	(431)	2.3	13.7	39.0	45.0	16.0	84.0	3.27
	유배우	(982)	6.5	21.9	46.1	25.5	28.4	71.6	2.91
	이혼·별거	(44)	6.8	11.4	56.8	25.0	18.2	81.8	3.00
	사별	(40)	17.5	25.0	32.5	25.0	42.5	57.5	2.65
	기타	(3)	0.0	0.0	66.7	33.3	0.0	100.0	3.33
자녀유무	예	(1002)	7.1	22.1	46.2	24.7	29.1	70.9	2.88
	아니오	(498)	2.6	13.7	39.8	44.0	16.3	83.7	3.25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3.9	18.5	42.7	34.9	22.4	77.6	3.09
	중	(650)	6.3	20.5	43.5	29.7	26.8	73.2	2.97
	중하/하	(515)	5.8	18.3	45.6	30.3	24.1	75.9	3.00
세대 구성	1세대	(330)	6.4	19.7	50.3	23.6	26.1	73.9	2.91
	2세대	(918)	5.0	20.0	42.6	32.4	25.1	74.9	3.02
	3세대 이상	(58)	8.6	19.0	44.8	27.6	27.6	72.4	2.91
	1인 가구	(190)	6.3	15.3	40.0	38.4	21.6	78.4	3.11
	비혈연 가구	(4)	0.0	0.0	50.0	50.0	0.0	100.0	3.50

3) 미혼부/모(미혼부나 미혼모) 가족의 자녀

- 응답자의 59.5%가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 가족의 형태가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인 것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40.5%는 반대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남성(62.8%)이 여성(56.2%)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혼인상태가 미혼(76.6%), 자녀가 없는 응답자(75.5%), 세대 구성이 1인 가구(70.0%)에서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가 1.3%p 하락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7.0%p), 성·연령별로 30대 남성(▽11.3%p) 응답자 층에서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수용도가 큰 폭 하락함

[그림19] 3) 미혼부/모(미혼부나 미혼모) 가족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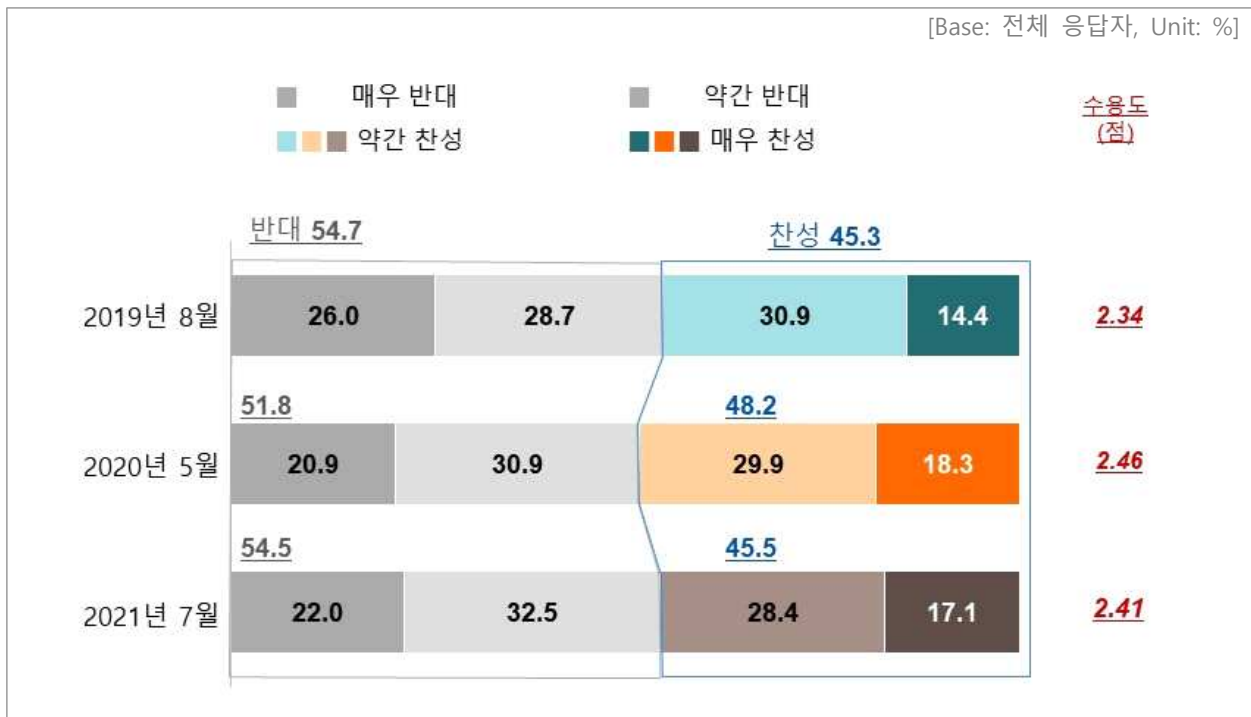
[표16] 3) 미혼부/모(미혼부나 미혼모) 가족의 자녀

		사례수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반대	찬성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14.4	26.1	37.3	22.2	40.5	59.5	2.67
성별	남성	(756)	13.0	24.2	40.1	22.8	37.2	62.8	2.73
	여성	(744)	15.9	28.0	34.5	21.6	43.8	56.2	2.62
연령	19-29세	(262)	5.3	12.2	44.7	37.8	17.6	82.4	3.15
	30-39세	(243)	13.6	21.0	39.1	26.3	34.6	65.4	2.78
	40-49세	(294)	11.6	26.2	39.1	23.1	37.8	62.2	2.74
	50-59세	(311)	18.0	32.5	34.4	15.1	50.5	49.5	2.47
	60-69세	(254)	20.9	31.5	33.5	14.2	52.4	47.6	2.41
	70-79세	(136)	19.1	36.8	30.1	14.0	55.9	44.1	2.39
권역	수도권	(808)	14.0	24.3	39.9	21.9	38.2	61.8	2.70
	충청권	(153)	11.8	26.8	34.6	26.8	38.6	61.4	2.76
	경북권	(149)	18.8	31.5	28.2	21.5	50.3	49.7	2.52
	경남권	(229)	15.7	26.6	34.9	22.7	42.4	57.6	2.65
	전라권	(161)	13.0	28.6	39.1	19.3	41.6	58.4	2.65
혼인상태	미혼	(431)	7.2	16.2	41.8	34.8	23.4	76.6	3.04
	유배우	(982)	17.5	30.1	35.3	17.0	47.7	52.3	2.52
	이혼·별거	(44)	11.4	22.7	50.0	15.9	34.1	65.9	2.70
	사별	(40)	20.0	32.5	27.5	20.0	52.5	47.5	2.48
	기타	(3)	0.0	66.7	0.0	33.3	66.7	33.3	2.67
자녀유무	예	(1002)	17.5	30.9	35.3	16.3	48.4	51.6	2.50
	아니오	(498)	8.2	16.3	41.4	34.1	24.5	75.5	3.01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15.5	22.4	36.7	25.4	37.9	62.1	2.72
	중	(650)	17.2	25.4	36.5	20.9	42.6	57.4	2.61
	중하/하	(515)	10.1	29.3	38.8	21.7	39.4	60.6	2.72
세대 구성	1세대	(330)	21.2	30.9	30.9	17.0	52.1	47.9	2.44
	2세대	(918)	13.4	25.5	39.1	22.0	38.9	61.1	2.70
	3세대 이상	(58)	10.3	25.9	37.9	25.9	36.2	63.8	2.79
	1인 가구	(190)	8.9	21.1	39.5	30.5	30.0	70.0	2.92
	비혈연 가구	(4)	0.0	0.0	50.0	50.0	0.0	100.0	3.50

4)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

- 응답자의 45.5%가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 가족의 형태가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인 것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54.5%는 반대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남성(47.2%)이 여성(43.8%)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혼인상태가 미혼(61.7%), 자녀가 없는 응답자(61.0%), 세대 구성이 1인 가구(54.7%)에서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는 2.7%p 하락했으며, 성별로는 남성(▽5.5%p), 성·연령별로는 30대 남성(▽15.0%p)에서 큰 폭 하락함

[그림20] 4)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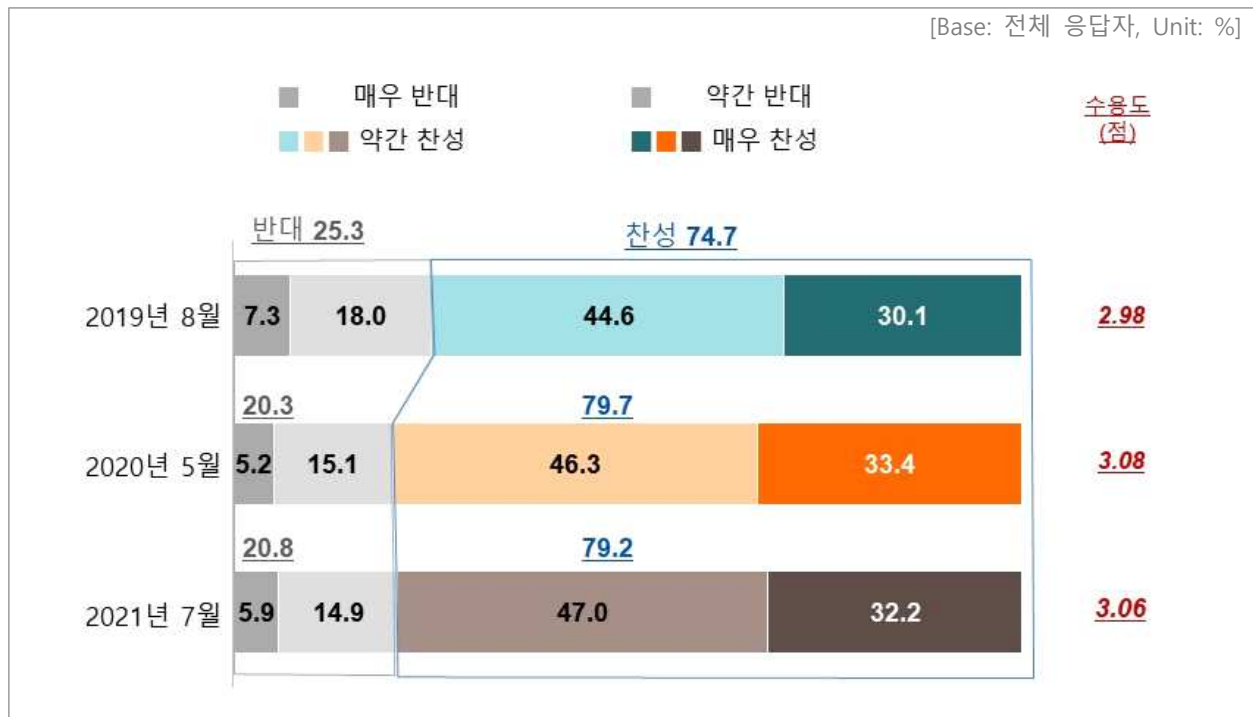
[표17] 4)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

		사례수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반대	찬성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22.0	32.5	28.4	17.1	54.5	45.5	2.41
성별	남성	(756)	19.6	33.2	31.2	16.0	52.8	47.2	2.44
	여성	(744)	24.5	31.7	25.5	18.3	56.2	43.8	2.38
연령	19-29세	(262)	10.7	23.7	37.4	28.2	34.4	65.6	2.83
	30-39세	(243)	20.6	28.0	28.4	23.0	48.6	51.4	2.54
	40-49세	(294)	16.7	33.3	30.3	19.7	50.0	50.0	2.53
	50-59세	(311)	28.0	33.1	27.0	11.9	61.1	38.9	2.23
	60-69세	(254)	29.5	40.2	19.7	10.6	69.7	30.3	2.11
	70-79세	(136)	30.1	39.7	26.5	3.7	69.9	30.1	2.04
권역	수도권	(808)	22.6	31.8	29.1	16.5	54.5	45.5	2.39
	충청권	(153)	19.0	35.9	24.8	20.3	54.9	45.1	2.46
	경북권	(149)	22.1	35.6	26.2	16.1	57.7	42.3	2.36
	경남권	(229)	20.1	31.9	27.9	20.1	52.0	48.0	2.48
	전라권	(161)	24.2	30.4	31.1	14.3	54.7	45.3	2.35
혼인상태	미혼	(431)	13.2	25.1	34.3	27.4	38.3	61.7	2.76
	유배우	(982)	25.5	35.9	26.0	12.6	61.4	38.6	2.26
	이혼·별거	(44)	27.3	22.7	29.5	20.5	50.0	50.0	2.43
	사별	(40)	25.0	37.5	25.0	12.5	62.5	37.5	2.25
	기타	(3)	33.3	33.3	0.0	33.3	66.7	33.3	2.33
자녀유무	예	(1002)	26.0	36.1	25.9	11.9	62.2	37.8	2.24
	아니오	(498)	13.9	25.1	33.3	27.7	39.0	61.0	2.75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24.2	30.4	29.0	16.4	54.6	45.4	2.38
	중	(650)	23.5	32.0	26.2	18.3	55.5	44.5	2.39
	중하/하	(515)	18.6	34.4	30.9	16.1	53.0	47.0	2.44
세대 구성	1세대	(330)	27.6	37.0	23.6	11.8	64.5	35.5	2.20
	2세대	(918)	20.8	32.2	29.8	17.1	53.1	46.9	2.43
	3세대 이상	(58)	17.2	36.2	24.1	22.4	53.4	46.6	2.52
	1인 가구	(190)	20.0	25.3	30.0	24.7	45.3	54.7	2.59
	비혈연 가구	(4)	0.0	0.0	75.0	25.0	0.0	100.0	3.25

5) 다문화 가족의 자녀

-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 가족의 형태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인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은 79.2%, 반대 비중은 20.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82.0%)이 여성(76.3%)보다, 연령대가 40대 이하, 자녀가 없는 응답자(87.1%), 세대 구성이 3세대 이상(84.5%)과 1인 가구(83.7%)에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가 0.5%p 하락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7.2%p), 성·연령별로는 50대 여성(▽12.0%p)에서 하락 폭이 큼

[그림21] 5) 다문화 가족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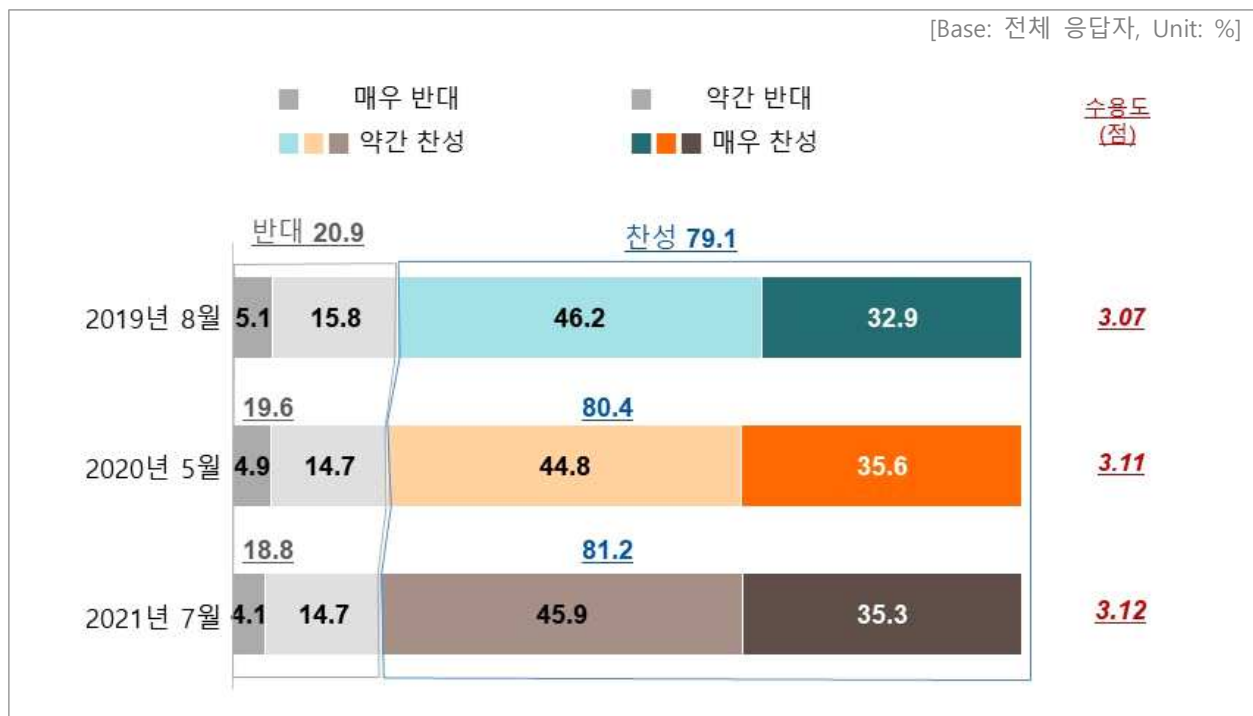
[표18] 5) 다문화 가족의 자녀

		사례수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반대	찬성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5.9	14.9	47.0	32.2	20.8	79.2	3.06
성별	남성	(756)	5.0	13.0	50.8	31.2	18.0	82.0	3.08
	여성	(744)	6.7	16.9	43.1	33.2	23.7	76.3	3.03
연령	19-29세	(262)	1.5	7.3	37.8	53.4	8.8	91.2	3.43
	30-39세	(243)	4.9	11.9	44.9	38.3	16.9	83.1	3.16
	40-49세	(294)	5.8	13.6	46.6	34.0	19.4	80.6	3.09
	50-59세	(311)	8.0	21.2	47.6	23.2	29.3	70.7	2.86
	60-69세	(254)	8.3	18.1	50.0	23.6	26.4	73.6	2.89
	70-79세	(136)	6.6	17.6	62.5	13.2	24.3	75.7	2.82
권역	수도권	(808)	6.7	14.1	45.7	33.5	20.8	79.2	3.06
	충청권	(153)	5.2	16.3	44.4	34.0	21.6	78.4	3.07
	경북권	(149)	4.7	13.4	51.7	30.2	18.1	81.9	3.07
	경남권	(229)	4.8	13.1	49.3	32.8	17.9	82.1	3.10
	전라권	(161)	5.0	21.7	48.4	24.8	26.7	73.3	2.93
혼인상태	미혼	(431)	3.0	10.0	39.4	47.6	13.0	87.0	3.32
	유배우	(982)	7.1	16.8	49.8	26.3	23.9	76.1	2.95
	이혼·별거	(44)	2.3	13.6	59.1	25.0	15.9	84.1	3.07
	사별	(40)	10.0	25.0	45.0	20.0	35.0	65.0	2.75
	기타	(3)	0.0	0.0	66.7	33.3	0.0	100.0	3.33
자녀유무	예	(1002)	6.9	17.9	50.2	25.0	24.8	75.2	2.93
	아니오	(498)	3.8	9.0	40.6	46.6	12.9	87.1	3.30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6.3	12.8	45.7	35.2	19.1	80.9	3.10
	중	(650)	7.1	13.8	45.8	33.2	20.9	79.1	3.05
	중하/하	(515)	4.1	17.7	49.3	28.9	21.7	78.3	3.03
세대 구성	1세대	(330)	8.5	15.8	52.7	23.0	24.2	75.8	2.90
	2세대	(918)	5.7	15.1	44.7	34.5	20.8	79.2	3.08
	3세대 이상	(58)	1.7	13.8	50.0	34.5	15.5	84.5	3.17
	1인 가구	(190)	3.7	12.6	47.4	36.3	16.3	83.7	3.16
	비혈연 가구	(4)	0.0	25.0	50.0	25.0	25.0	75.0	3.00

6) 입양된 자녀

-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 가족의 형태가 '입양된 자녀'인 것에 대해 81.2%가 찬성하는 반면, 18.8%는 반대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84.3%)이 여성(78.1%)보다, 연령별로는 19-29세(94.3%)와 30대(87.2%), 자녀가 없는 응답자(90.2%)에서 입양된 자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입양된 자녀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가 0.8%p 상승했으며, 성·연령별로는 50대 이상 남성의 상승 폭이 5.0%p 이상으로 크며, 혼인상태가 이혼별거(△12.2%p)인 응답자 층에서 입양된 자녀에 대한 수용도가 큰 폭 상승함

[그림22] 6) 입양된 자녀



[표19] 6) 입양된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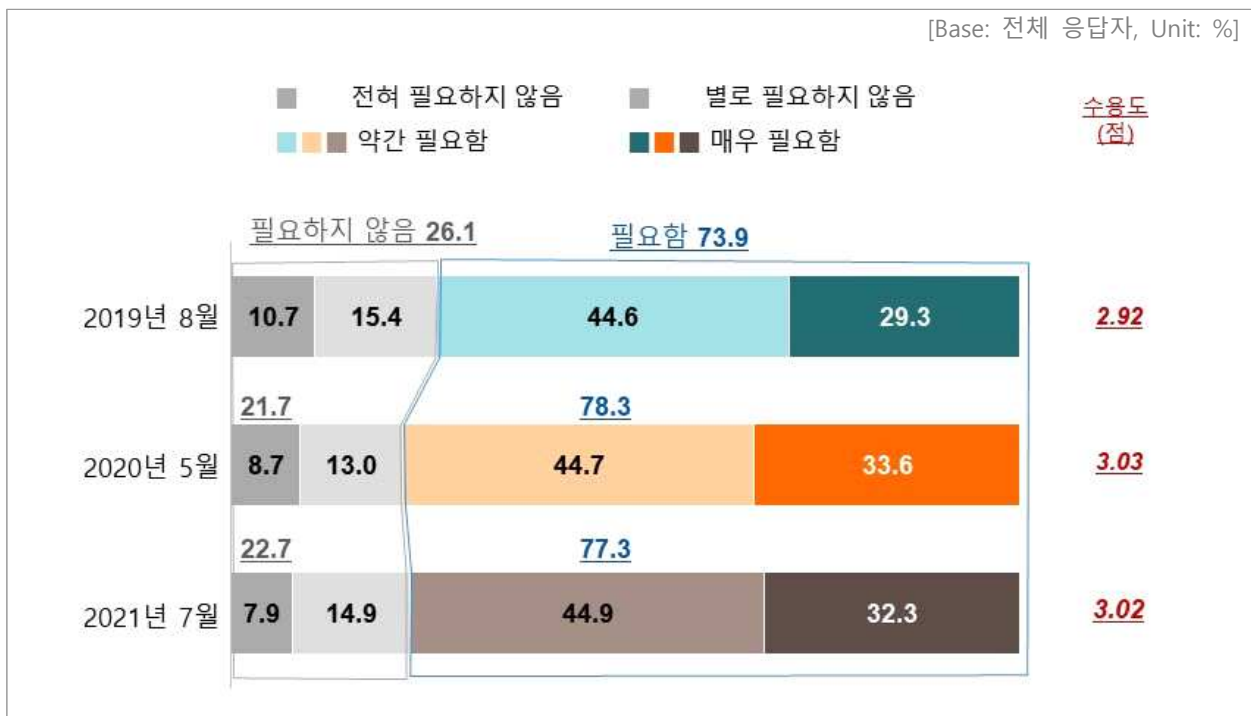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반대	찬성	수용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4.1	14.7	45.9	35.3	18.8	81.2	3.12
성별	남성	(756)	3.8	11.9	50.3	34.0	15.7	84.3	3.14
	여성	(744)	4.4	17.5	41.5	36.6	21.9	78.1	3.10
연령	19-29세	(262)	1.1	4.6	36.3	58.0	5.7	94.3	3.51
	30-39세	(243)	1.6	11.1	41.2	46.1	12.8	87.2	3.32
	40-49세	(294)	5.1	15.6	45.9	33.3	20.7	79.3	3.07
	50-59세	(311)	4.8	18.6	51.4	25.1	23.5	76.5	2.97
	60-69세	(254)	6.7	21.3	44.1	28.0	28.0	72.0	2.93
	70-79세	(136)	5.9	16.9	64.0	13.2	22.8	77.2	2.85
권역	수도권	(808)	4.3	14.5	45.2	36.0	18.8	81.2	3.13
	충청권	(153)	3.9	14.4	43.1	38.6	18.3	81.7	3.16
	경북권	(149)	8.1	13.4	45.0	33.6	21.5	78.5	3.04
	경남권	(229)	2.6	13.1	48.5	35.8	15.7	84.3	3.17
	전라권	(161)	1.9	19.3	49.7	29.2	21.1	78.9	3.06
혼인상태	미혼	(431)	2.1	8.1	36.7	53.1	10.2	89.8	3.41
	유배우	(982)	4.7	17.9	49.3	28.1	22.6	77.4	3.01
	이혼·별거	(44)	4.5	6.8	54.5	34.1	11.4	88.6	3.18
	사별	(40)	12.5	15.0	52.5	20.0	27.5	72.5	2.80
	기타	(3)	0.0	0.0	66.7	33.3	0.0	100.0	3.33
자녀유무	예	(1002)	5.2	18.1	50.1	26.6	23.3	76.7	2.98
	아니오	(498)	2.0	7.8	37.6	52.6	9.8	90.2	3.41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3.6	12.8	42.4	41.2	16.4	83.6	3.21
	중	(650)	4.6	15.4	43.5	36.5	20.0	80.0	3.12
	중하/하	(515)	3.9	15.0	51.3	29.9	18.8	81.2	3.07
세대 구성	1세대	(330)	4.2	17.6	48.8	29.4	21.8	78.2	3.03
	2세대	(918)	4.0	14.1	45.1	36.8	18.1	81.9	3.15
	3세대 이상	(58)	3.4	17.2	41.4	37.9	20.7	79.3	3.14
	1인 가구	(190)	4.7	12.1	45.8	37.4	16.8	83.2	3.16
	비혈연 가구	(4)	0.0	0.0	75.0	25.0	0.0	100.0	3.25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 응답자의 77.3%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2.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여성(79.0%)이 남성(75.5%)보다, 연령별로는 19-29세(82.1%), 혼인상태가 미혼(83.5%)과 사별(90.0%)에서, 자녀가 없는 응답자(82.7%),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세대 구성이 1인 가구(83.2%)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음
- 전년 대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수요도가 1.0%p 하락했으며, 성·연령별로 19-29세 남성(▽7.9%p)와 40대 남자(▽8.2%p), 혼인상태가 이혼·별거(▽13.9%p)인 응답자에게서 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 하락 폭이 큼

[그림23] 1)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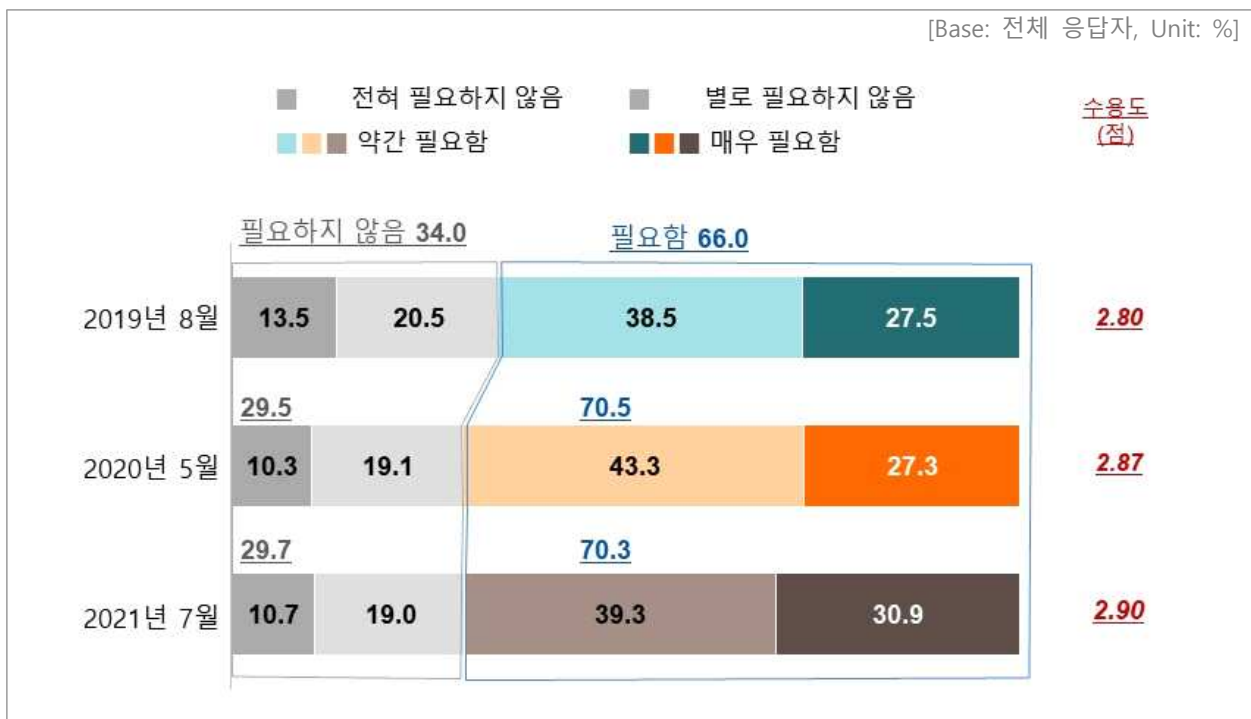
[표20] 1)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수요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7.9	14.9	44.9	32.3	22.7	77.3	3.02
성별	남성	(756)	10.3	14.2	46.4	29.1	24.5	75.5	2.94
	여성	(744)	5.4	15.6	43.4	35.6	21.0	79.0	3.09
연령	19-29세	(262)	5.7	12.2	39.3	42.7	17.9	82.1	3.19
	30-39세	(243)	10.3	15.6	45.7	28.4	25.9	74.1	2.92
	40-49세	(294)	7.8	14.6	44.9	32.7	22.4	77.6	3.02
	50-59세	(311)	5.8	15.8	46.0	32.5	21.5	78.5	3.05
	60-69세	(254)	10.6	15.7	43.3	30.3	26.4	73.6	2.93
	70-79세	(136)	7.4	15.4	55.1	22.1	22.8	77.2	2.92
권역	수도권	(808)	7.9	15.2	43.4	33.4	23.1	76.9	3.02
	충청권	(153)	9.2	13.1	43.8	34.0	22.2	77.8	3.03
	경북권	(149)	7.4	16.8	46.3	29.5	24.2	75.8	2.98
	경남권	(229)	7.9	14.4	48.0	29.7	22.3	77.7	3.00
	전라권	(161)	6.8	13.7	47.8	31.7	20.5	79.5	3.04
혼인상태	미혼	(431)	5.3	11.1	39.0	44.5	16.5	83.5	3.23
	유배우	(982)	8.9	17.2	47.6	26.4	26.1	73.9	2.91
	이혼·별거	(44)	11.4	11.4	29.5	47.7	22.7	77.3	3.14
	사별	(40)	7.5	2.5	62.5	27.5	10.0	90.0	3.10
	기타	(3)	0.0	0.0	33.3	66.7	0.0	100.0	3.67
자녀유무	예	(1002)	9.3	16.2	47.3	27.2	25.4	74.6	2.93
	아니오	(498)	5.0	12.2	40.2	42.6	17.3	82.7	3.20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11.6	17.3	39.7	31.3	29.0	71.0	2.91
	중	(650)	7.7	16.3	45.2	30.8	24.0	76.0	2.99
	중하/하	(515)	5.6	11.5	48.0	35.0	17.1	82.9	3.12
세대 구성	1세대	(330)	7.6	17.6	50.0	24.8	25.2	74.8	2.92
	2세대	(918)	7.8	15.3	44.0	32.9	23.1	76.9	3.02
	3세대 이상	(58)	10.3	8.6	44.8	36.2	19.0	81.0	3.07
	1인 가구	(190)	7.4	9.5	41.6	41.6	16.8	83.2	3.17
	비혈연 가구	(4)	25.0	50.0	0.0	25.0	75.0	25.0	2.25

2)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 가족 다양성 정책과 관련해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0.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9.7%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75.7%)이 남성(64.9%)보다, 연령별로는 19-29세(77.9%), 자녀가 없는 응답자(73.7%),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세대 구성이 3세대 이상(75.9%)에서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편임
- 전년 대비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한 필요도가 0.3%p 하락했으며, 성별로는 남성(▽3.7%p), 연령별로 30대(▽8.6%p), 성·연령별로는 30대 남자(▽13.3%p)에서 하락 폭이 큼

[그림24] 2)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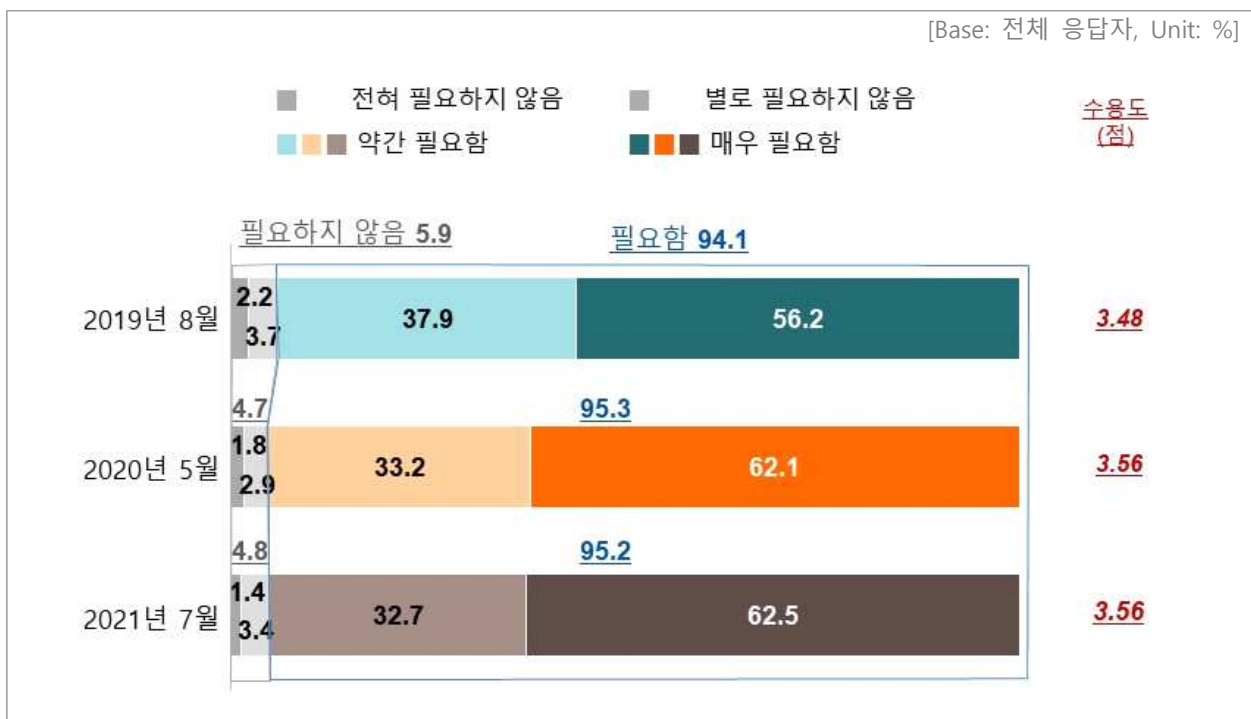
[표21] 2)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수요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10.7	19.0	39.3	30.9	29.7	70.3	2.90
성별	남성	(756)	13.1	22.0	36.9	28.0	35.1	64.9	2.80
	여성	(744)	8.3	16.0	41.8	33.9	24.3	75.7	3.01
연령	19-29세	(262)	8.0	14.1	39.7	38.2	22.1	77.9	3.08
	30-39세	(243)	9.9	25.5	32.1	32.5	35.4	64.6	2.87
	40-49세	(294)	10.9	14.6	37.1	37.4	25.5	74.5	3.01
	50-59세	(311)	9.3	16.1	43.7	30.9	25.4	74.6	2.96
	60-69세	(254)	15.4	20.9	40.9	22.8	36.2	63.8	2.71
	70-79세	(136)	11.8	29.4	43.4	15.4	41.2	58.8	2.63
권역	수도권	(808)	11.3	18.1	38.5	32.2	29.3	70.7	2.92
	충청권	(153)	8.5	20.9	38.6	32.0	29.4	70.6	2.94
	경북권	(149)	9.4	24.8	40.3	25.5	34.2	65.8	2.82
	경남권	(229)	10.0	18.8	39.7	31.4	28.8	71.2	2.93
	전라권	(161)	12.4	16.8	42.9	28.0	29.2	70.8	2.86
혼인상태	미혼	(431)	8.1	17.2	35.7	39.0	25.3	74.7	3.06
	유배우	(982)	12.0	20.0	40.1	27.9	32.0	68.0	2.84
	이혼·별거	(44)	9.1	15.9	40.9	34.1	25.0	75.0	3.00
	사별	(40)	10.0	20.0	57.5	12.5	30.0	70.0	2.73
	기타	(3)	0.0	0.0	33.3	66.7	0.0	100.0	3.67
자녀유무	예	(1002)	11.8	19.7	41.4	27.1	31.4	68.6	2.84
	아니오	(498)	8.6	17.7	35.1	38.6	26.3	73.7	3.04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12.8	13.7	38.5	34.9	26.6	73.4	2.96
	중	(650)	10.6	19.5	37.2	32.6	30.2	69.8	2.92
	중하/하	(515)	9.5	21.7	42.5	26.2	31.3	68.7	2.85
세대 구성	1세대	(330)	11.8	23.3	38.5	26.4	35.2	64.8	2.79
	2세대	(918)	10.9	17.2	40.5	31.4	28.1	71.9	2.92
	3세대 이상	(58)	8.6	15.5	41.4	34.5	24.1	75.9	3.02
	1인 가구	(190)	8.9	21.1	34.7	35.3	30.0	70.0	2.96
	비혈연 가구	(4)	0.0	25.0	25.0	50.0	25.0	75.0	3.25

3) 아버지,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 응답자의 95.2%가 '아버지,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8%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성별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연령별로는 19-29세(98.1%)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년 대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0.1%p 하락했으며, 성·연령별로는 30대 남성(▽5.0%p)에서 하락 폭이 큼

[그림25] 3) 아버지,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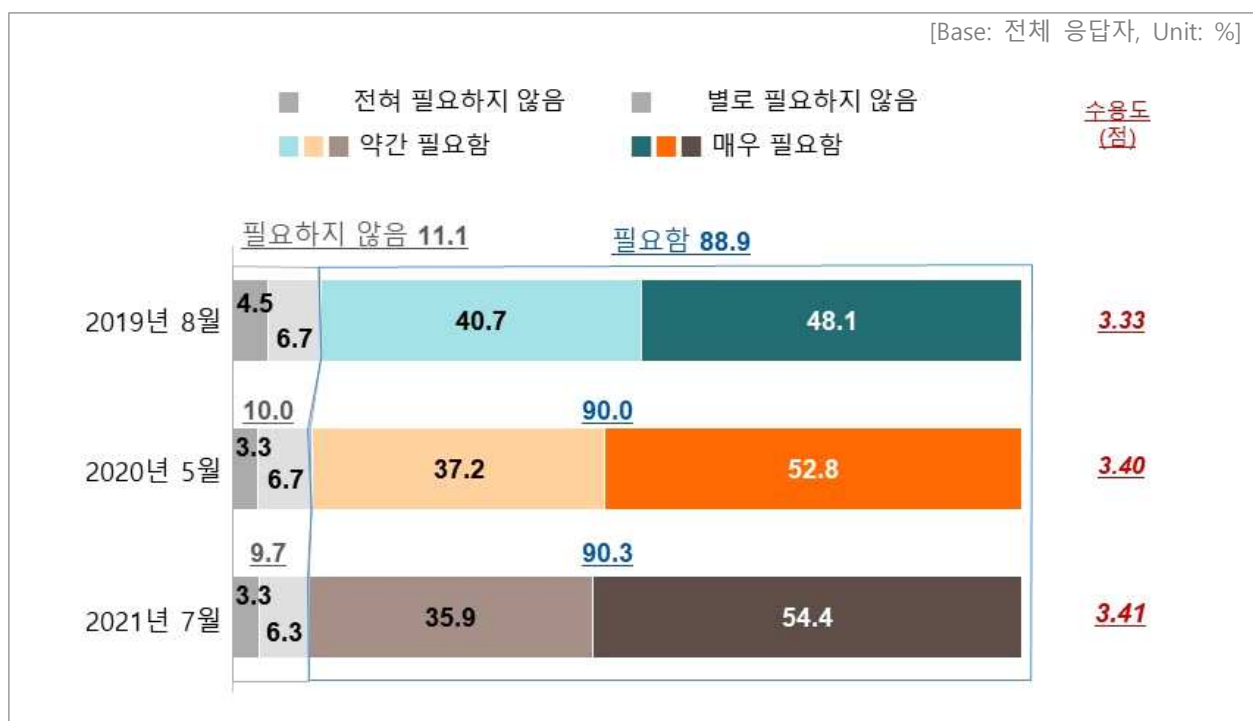
[표22] 3) 아버지,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수요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1.4	3.4	32.7	62.5	4.8	95.2	3.56
성별	남성	(756)	1.6	3.7	32.1	62.6	5.3	94.7	3.56
	여성	(744)	1.2	3.1	33.2	62.5	4.3	95.7	3.57
연령	19-29세	(262)	0.0	1.9	20.2	77.9	1.9	98.1	3.76
	30-39세	(243)	2.5	3.7	31.3	62.6	6.2	93.8	3.54
	40-49세	(294)	.7	3.1	29.9	66.3	3.7	96.3	3.62
	50-59세	(311)	2.9	2.3	36.7	58.2	5.1	94.9	3.50
	60-69세	(254)	.8	4.3	39.0	55.9	5.1	94.9	3.50
	70-79세	(136)	1.5	7.4	44.1	47.1	8.8	91.2	3.37
권역	수도권	(808)	1.4	4.0	32.4	62.3	5.3	94.7	3.56
	충청권	(153)	2.6	1.3	30.1	66.0	3.9	96.1	3.59
	경북권	(149)	1.3	4.0	38.3	56.4	5.4	94.6	3.50
	경남권	(229)	1.3	2.6	34.5	61.6	3.9	96.1	3.56
	전라권	(161)	.6	3.1	28.6	67.7	3.7	96.3	3.63
혼인상태	미혼	(431)	.5	3.0	25.5	71.0	3.5	96.5	3.67
	유배우	(982)	1.6	3.4	35.7	59.3	5.0	95.0	3.53
	이혼·별거	(44)	2.3	4.5	18.2	75.0	6.8	93.2	3.66
	사별	(40)	5.0	7.5	50.0	37.5	12.5	87.5	3.20
	기타	(3)	0.0	0.0	33.3	66.7	0.0	100.0	3.67
자녀유무	예	(1002)	1.7	3.5	35.4	59.4	5.2	94.8	3.52
	아니오	(498)	.8	3.2	27.1	68.9	4.0	96.0	3.64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1.5	3.3	33.4	61.8	4.8	95.2	3.56
	중	(650)	1.5	3.4	32.5	62.6	4.9	95.1	3.56
	중하/하	(515)	1.2	3.5	32.4	62.9	4.7	95.3	3.57
세대 구성	1세대	(330)	1.8	3.6	39.4	55.2	5.5	94.5	3.48
	2세대	(918)	1.2	3.3	30.6	64.9	4.5	95.5	3.59
	3세대 이상	(58)	0.0	3.4	31.0	65.5	3.4	96.6	3.62
	1인 가구	(190)	2.1	3.7	31.1	63.2	5.8	94.2	3.55
	비혈연 가구	(4)	0.0	0.0	50.0	50.0	0.0	100.0	3.50

4)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 응답자의 90.3%가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9.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성별로는 여성(93.1%)이 남성(87.6%)보다, 연령별로는 40대-60대에서, 세대 구성별로는 3세대 이상(94.8%)에서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음
- 전년 대비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0.3%p 상승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Delta 3.8\text{p}$), 성·연령별로는 40대 남성($\Delta 7.5\text{p}$)에서 상승 폭이 큼

[그림26] 4)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표23] 4)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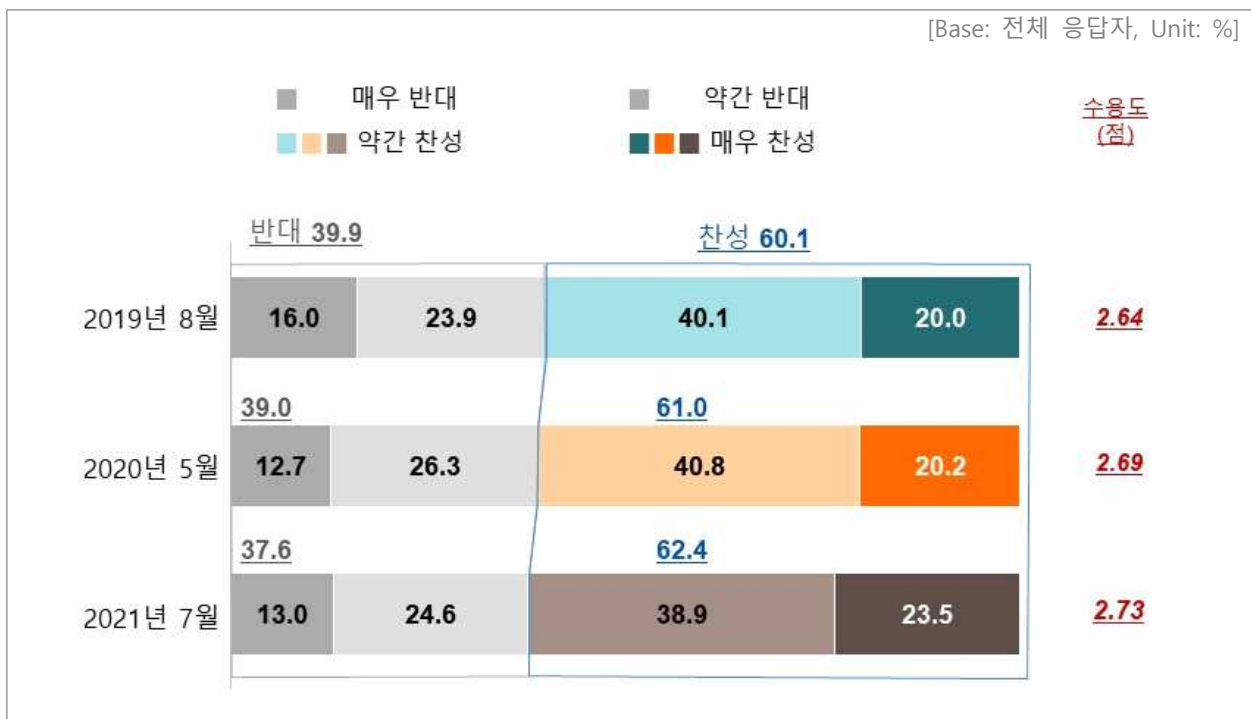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수요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3.3	6.3	35.9	54.4	9.7	90.3	3.41
성별	남성	(756)	5.0	7.4	38.5	49.1	12.4	87.6	3.32
	여성	(744)	1.6	5.2	33.3	59.8	6.9	93.1	3.51
연령	19-29세	(262)	3.1	7.6	24.4	64.9	10.7	89.3	3.51
	30-39세	(243)	5.3	7.4	35.8	51.4	12.8	87.2	3.33
	40-49세	(294)	2.0	3.1	33.3	61.6	5.1	94.9	3.54
	50-59세	(311)	3.9	5.1	33.4	57.6	9.0	91.0	3.45
	60-69세	(254)	3.1	6.7	44.9	45.3	9.8	90.2	3.32
	70-79세	(136)	2.2	11.0	52.9	33.8	13.2	86.8	3.18
권역	수도권	(808)	4.2	6.2	34.9	54.7	10.4	89.6	3.40
	충청권	(153)	3.3	6.5	28.8	61.4	9.8	90.2	3.48
	경북권	(149)	1.3	4.7	41.6	52.3	6.0	94.0	3.45
	경남권	(229)	2.6	7.9	38.9	50.7	10.5	89.5	3.38
	전라권	(161)	1.9	6.2	38.5	53.4	8.1	91.9	3.43
혼인상태	미혼	(431)	3.9	7.4	27.8	60.8	11.4	88.6	3.45
	유배우	(982)	3.4	5.7	39.1	51.8	9.1	90.9	3.39
	이혼·별거	(44)	0.0	4.5	31.8	63.6	4.5	95.5	3.59
	사별	(40)	0.0	12.5	52.5	35.0	12.5	87.5	3.23
	기타	(3)	0.0	0.0	0.0	100.0	0.0	100.0	4.00
자녀유무	예	(1002)	3.0	6.1	38.9	52.0	9.1	90.9	3.40
	아니오	(498)	4.0	6.8	29.9	59.2	10.8	89.2	3.44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4.2	8.4	33.1	54.3	12.5	87.5	3.38
	중	(650)	3.2	5.1	37.7	54.0	8.3	91.7	3.42
	중하/하	(515)	2.9	6.6	35.5	55.0	9.5	90.5	3.43
세대 구성	1세대	(330)	3.0	5.8	47.0	44.2	8.8	91.2	3.32
	2세대	(918)	3.6	6.2	32.9	57.3	9.8	90.2	3.44
	3세대 이상	(58)	1.7	3.4	29.3	65.5	5.2	94.8	3.59
	1인 가구	(190)	2.1	8.9	34.2	54.7	11.1	88.9	3.42
	비혈연 가구	(4)	50.0	0.0	0.0	50.0	50.0	50.0	2.50

5.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정도

1) 가족의 범위 확장

- 혼인, 혈연에 기반하여 정의되는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2.4%, 반대는 37.6%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66.7%)이 남성(58.2%) 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혼인상태가 이혼·별거(77.3%), 자녀가 없는 응답자(66.3%)에서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음
- 전년 대비 가족의 범위 확장에 대한 찬성은 1.4%p 상승했으며, 연령별로 60대(△8.8%p), 성·연령별로 60대 여성(△9.1%p), 세대 구성별로는 3세대 이상(△10.4%p)에서 상승 폭이 큼

[그림27] 1) 가족의 범위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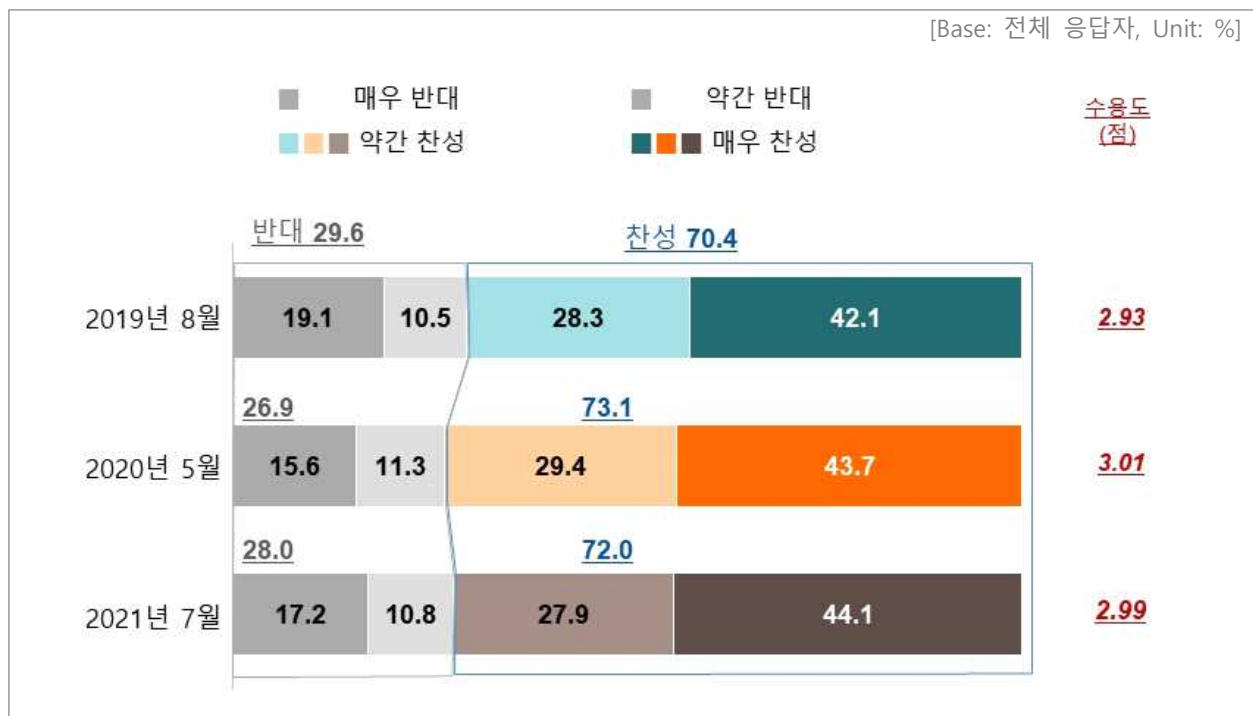
[표24] 1) 가족의 범위 확장

		사례수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반대	찬성	찬성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13.0	24.6	38.9	23.5	37.6	62.4	2.73
성별	남성	(756)	14.7	27.1	38.4	19.8	41.8	58.2	2.63
	여성	(744)	11.3	22.0	39.5	27.2	33.3	66.7	2.83
연령	19-29세	(262)	9.2	22.5	39.3	29.0	31.7	68.3	2.88
	30-39세	(243)	14.4	23.9	37.4	24.3	38.3	61.7	2.72
	40-49세	(294)	13.9	18.0	39.5	28.6	32.0	68.0	2.83
	50-59세	(311)	11.6	24.4	38.6	25.4	36.0	64.0	2.78
	60-69세	(254)	14.2	28.3	40.6	16.9	42.5	57.5	2.60
	70-79세	(136)	16.9	37.5	37.5	8.1	54.4	45.6	2.37
권역	수도권	(808)	12.7	24.9	39.2	23.1	37.6	62.4	2.73
	충청권	(153)	12.4	21.6	41.8	24.2	34.0	66.0	2.78
	경북권	(149)	16.1	29.5	32.9	21.5	45.6	54.4	2.60
	경남권	(229)	13.1	21.4	39.3	26.2	34.5	65.5	2.79
	전라권	(161)	11.8	26.1	39.8	22.4	37.9	62.1	2.73
혼인상태	미혼	(431)	10.7	22.7	38.5	28.1	33.4	66.6	2.84
	유배우	(982)	14.2	26.3	38.5	21.1	40.4	59.6	2.66
	이혼·별거	(44)	13.6	9.1	43.2	34.1	22.7	77.3	2.98
	사별	(40)	10.0	22.5	50.0	17.5	32.5	67.5	2.75
	기타	(3)	0.0	0.0	33.3	66.7	0.0	100.0	3.67
자녀유무	예	(1002)	13.9	25.6	39.4	21.1	39.5	60.5	2.68
	아니오	(498)	11.2	22.5	38.0	28.3	33.7	66.3	2.83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14.6	23.3	35.5	26.6	37.9	62.1	2.74
	중	(650)	12.3	26.6	36.6	24.5	38.9	61.1	2.73
	중하/하	(515)	12.8	22.9	44.1	20.2	35.7	64.3	2.72
세대 구성	1세대	(330)	13.6	30.6	40.9	14.8	44.2	55.8	2.57
	2세대	(918)	13.5	22.7	38.3	25.5	36.2	63.8	2.76
	3세대 이상	(58)	6.9	22.4	44.8	25.9	29.3	70.7	2.90
	1인 가구	(190)	11.1	24.7	36.8	27.4	35.8	64.2	2.81
	비혈연 가구	(4)	25.0	0.0	25.0	50.0	25.0	75.0	3.00

2) 자녀의 성과 본

-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0%가 찬성하는 반면, 28.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78.5%)이 남성(65.6%)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혼인상태가 미혼(85.8%), 자녀가 없는 응답자(85.7%),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세대 구성이 3세대 이상(82.8%)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음
- 전년 대비 찬성이 1.1%p 하락했으며, 연령별로는 70대(▽11.0%p), 성·연령별로는 70대 남성(▽10.6%p)과 70대 여성(▽11.3%p)에서 하락 폭이 큼

[그림28] 2) 자녀의 성과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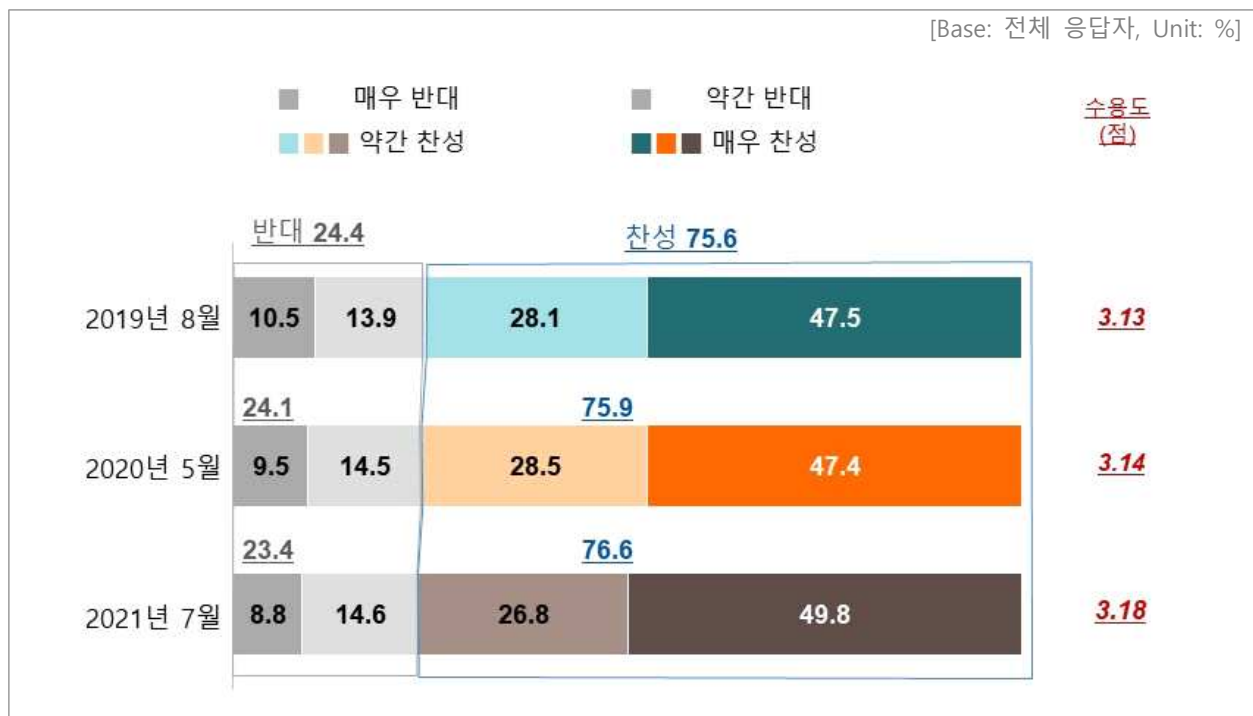
[표25] 2) 자녀의 성과 본

		사례수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반대	찬성	찬성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17.2	10.8	27.9	44.1	28.0	72.0	2.99
성별	남성	(756)	21.7	12.7	31.0	34.7	34.4	65.6	2.79
	여성	(744)	12.6	8.9	24.7	53.8	21.5	78.5	3.20
연령	19-29세	(262)	5.7	3.8	24.4	66.0	9.5	90.5	3.51
	30-39세	(243)	9.1	9.1	27.6	54.3	18.1	81.9	3.27
	40-49세	(294)	10.9	8.2	29.9	51.0	19.0	81.0	3.21
	50-59세	(311)	19.9	12.5	29.3	38.3	32.5	67.5	2.86
	60-69세	(254)	32.3	16.1	25.6	26.0	48.4	51.6	2.45
	70-79세	(136)	33.1	19.1	31.6	16.2	52.2	47.8	2.31
권역	수도권	(808)	14.9	10.3	28.2	46.7	25.1	74.9	3.07
	충청권	(153)	14.4	13.1	28.8	43.8	27.5	72.5	3.02
	경북권	(149)	19.5	8.7	30.9	40.9	28.2	71.8	2.93
	경남권	(229)	21.8	10.5	26.6	41.0	32.3	67.7	2.87
	전라권	(161)	23.0	13.7	24.2	39.1	36.6	63.4	2.80
혼인상태	미혼	(431)	9.0	5.1	27.1	58.7	14.2	85.8	3.35
	유배우	(982)	19.8	13.0	28.5	38.7	32.8	67.2	2.86
	이혼·별거	(44)	22.7	15.9	20.5	40.9	38.6	61.4	2.80
	사별	(40)	32.5	12.5	30.0	25.0	45.0	55.0	2.48
	기타	(3)	66.7	0.0	0.0	33.3	66.7	33.3	2.00
자녀유무	예	(1002)	21.5	13.4	28.0	37.1	34.8	65.2	2.81
	아니오	(498)	8.6	5.6	27.5	58.2	14.3	85.7	3.35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15.2	10.1	24.8	49.9	25.4	74.6	3.09
	중	(650)	17.4	10.6	26.8	45.2	28.0	72.0	3.00
	중하/하	(515)	18.3	11.5	31.3	39.0	29.7	70.3	2.91
세대 구성	1세대	(330)	25.2	13.6	27.9	33.3	38.8	61.2	2.69
	2세대	(918)	14.1	10.6	26.9	48.5	24.6	75.4	3.10
	3세대 이상	(58)	8.6	8.6	36.2	46.6	17.2	82.8	3.21
	1인 가구	(190)	21.1	7.9	29.5	41.6	28.9	71.1	2.92
	비혈연 가구	(4)	25.0	0.0	50.0	25.0	25.0	75.0	2.75

3) 혼외자·혼중자 차별 폐지

-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구분하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6.6%가 찬성하는 반면, 23.4%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78.2%)이 남성(75.0%)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자녀가 없는 응답자(80.1%),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세대 구성이 3세대 이상(82.8%)에서 혼외자와 혼중자 용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응답이 높음
- 전년 대비 혼외자·혼중자 차별 폐지에 대해 찬성하다는 의견이 0.7%p 상승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11.5%p), 성·연령별로는 60대 여성(△14.4%p)에서 상승 폭이 큼

[그림29] 3) 혼외자·혼중자 차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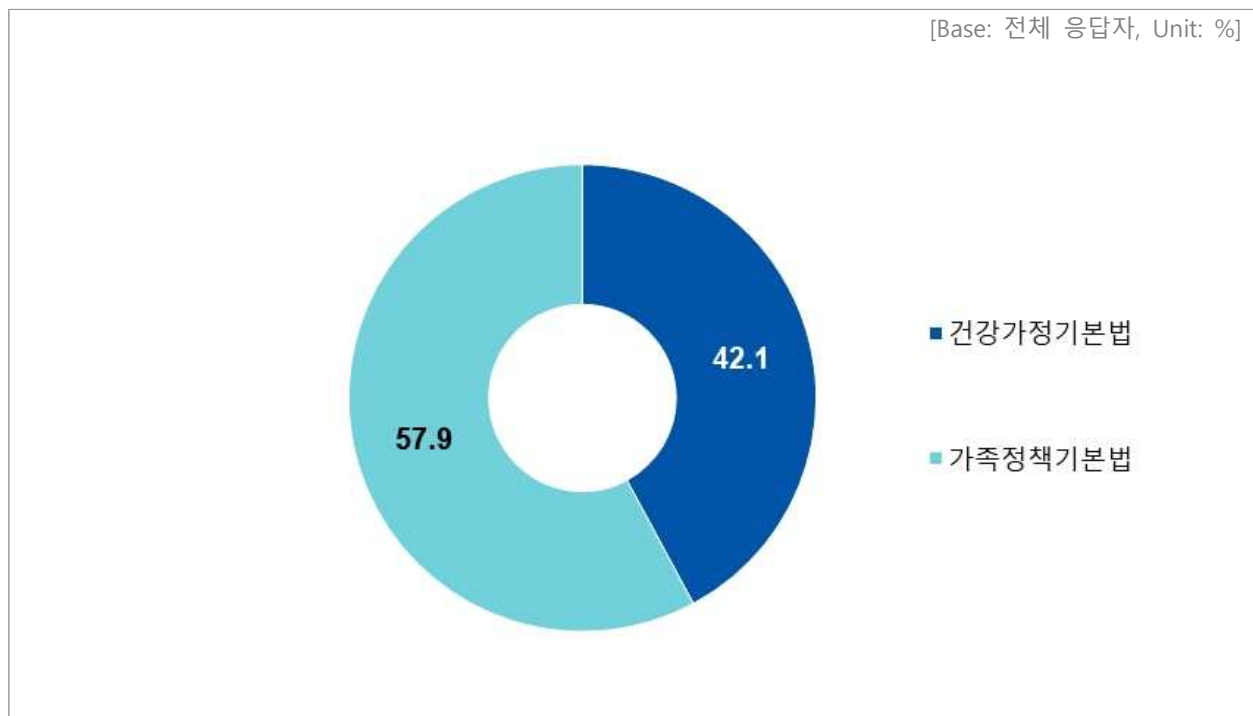
[표26] 3) 혼외자·혼중자 차별 폐지

		사례수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반대	찬성	찬성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8.8	14.6	26.8	49.8	23.4	76.6	3.18
성별	남성	(756)	10.2	14.8	28.8	46.2	25.0	75.0	3.11
	여성	(744)	7.4	14.4	24.7	53.5	21.8	78.2	3.24
연령	19-29세	(262)	5.7	13.7	28.2	52.3	19.5	80.5	3.27
	30-39세	(243)	8.6	11.1	23.0	57.2	19.8	80.2	3.29
	40-49세	(294)	5.8	12.9	21.4	59.9	18.7	81.3	3.35
	50-59세	(311)	8.4	12.2	26.4	53.1	20.6	79.4	3.24
	60-69세	(254)	13.0	17.7	26.4	42.9	30.7	69.3	2.99
	70-79세	(136)	14.7	25.7	44.1	15.4	40.4	59.6	2.60
권역	수도권	(808)	9.5	12.6	25.2	52.6	22.2	77.8	3.21
	충청권	(153)	7.8	13.7	25.5	52.9	21.6	78.4	3.24
	경북권	(149)	6.0	14.8	31.5	47.7	20.8	79.2	3.21
	경남권	(229)	10.9	19.2	25.3	44.5	30.1	69.9	3.03
	전라권	(161)	5.6	18.6	33.5	42.2	24.2	75.8	3.12
혼인상태	미혼	(431)	8.4	12.3	28.1	51.3	20.6	79.4	3.22
	유배우	(982)	9.0	14.7	26.2	50.2	23.6	76.4	3.18
	이혼·별거	(44)	4.5	13.6	29.5	52.3	18.2	81.8	3.30
	사별	(40)	15.0	37.5	27.5	20.0	52.5	47.5	2.53
	기타	(3)	0.0	33.3	0.0	66.7	33.3	66.7	3.33
자녀유무	예	(1002)	9.1	16.1	26.2	48.6	25.1	74.9	3.14
	아니오	(498)	8.2	11.6	27.9	52.2	19.9	80.1	3.24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9.9	12.5	24.5	53.1	22.4	77.6	3.21
	중	(650)	8.6	14.5	24.6	52.3	23.1	76.9	3.21
	중하/하	(515)	8.3	16.1	31.1	44.5	24.5	75.5	3.12
세대 구성	1세대	(330)	10.3	14.8	32.4	42.4	25.2	74.8	3.07
	2세대	(918)	8.1	14.2	25.1	52.7	22.2	77.8	3.22
	3세대 이상	(58)	3.4	13.8	29.3	53.4	17.2	82.8	3.33
	1인 가구	(190)	10.5	16.8	25.3	47.4	27.4	72.6	3.09
	비혈연 가구	(4)	50.0	0.0	0.0	50.0	50.0	50.0	2.50

6.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돌봄 등 서비스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 명칭

-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돌봄 등 서비스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명칭으로 '가족정책기본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7.9%로 높음
- 성별로는 남성(59.0%)이 여성(56.7%)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자녀가 없는 응답자(62.0%),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정책기본법 명칭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1]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돌봄 등 서비스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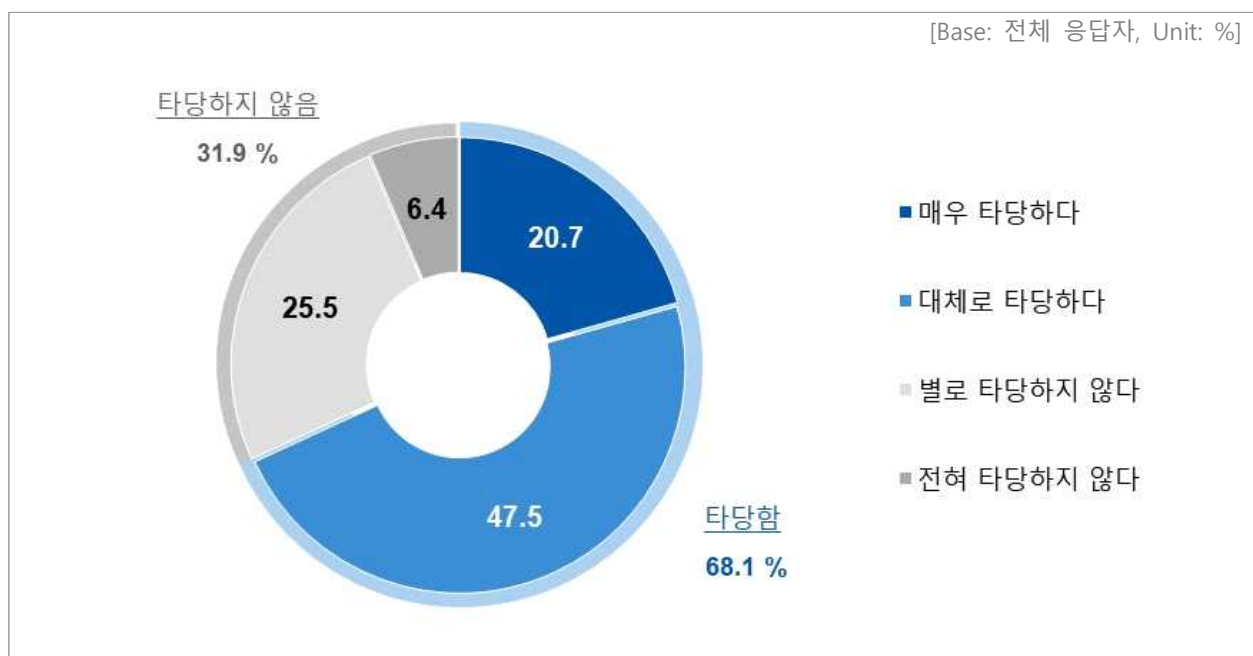
[표27]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돌봄 등 서비스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 명칭

		사례수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기본법
■ 전체 ■		(1500)	42.1	57.9
성별	남성	(756)	41.0	59.0
	여성	(744)	43.3	56.7
연령	19-29세	(262)	38.9	61.1
	30-39세	(243)	35.0	65.0
	40-49세	(294)	36.7	63.3
	50-59세	(311)	46.6	53.4
	60-69세	(254)	48.0	52.0
	70-79세	(136)	51.5	48.5
권역	수도권	(808)	43.3	56.7
	충청권	(153)	43.1	56.9
	경북권	(149)	40.3	59.7
	경남권	(229)	34.9	65.1
	전라권	(161)	47.2	52.8
혼인상태	미혼	(431)	38.3	61.7
	유배우	(982)	43.0	57.0
	이혼·별거	(44)	40.9	59.1
	사별	(40)	65.0	35.0
	기타	(3)	33.3	66.7
자녀유무	예	(1002)	44.2	55.8
	아니오	(498)	38.0	62.0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38.5	61.5
	중	(650)	42.5	57.5
	중하/하	(515)	44.1	55.9
세대 구성	1세대	(330)	44.5	55.5
	2세대	(918)	41.4	58.6
	3세대 이상	(58)	43.1	56.9
	1인 가구	(190)	41.1	58.9
	비혈연 가구	(4)	50.0	50.0

7.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타당성 정도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명 수정 권고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68.1%로,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31.9%)보다 높음
- 성별로 여성(71.9%)이 남성(64.4%)보다, 연령별로 40대 이하, 혼인상태가 미혼(74.2%), 자녀가 없는 응답자(72.9%)에게서 건강가정기본법 법률명 수정 권고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음

[그림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타당성 정도



[표2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타당성 정도

		사례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대체로 타당함	매우 타당함	타당하지 않음	타당함	타당도 [4점 평균]
■ 전체 ■		(1500)	6.4	25.5	47.5	20.7	31.9	68.1	2.82
성별	남성	(756)	8.1	27.5	45.0	19.4	35.6	64.4	2.76
	여성	(744)	4.7	23.4	50.0	21.9	28.1	71.9	2.89
연령	19-29세	(262)	3.4	22.5	59.5	14.5	26.0	74.0	2.85
	30-39세	(243)	7.4	22.6	45.7	24.3	30.0	70.0	2.87
	40-49세	(294)	5.1	20.4	46.3	28.2	25.5	74.5	2.98
	50-59세	(311)	8.7	27.7	40.8	22.8	36.3	63.7	2.78
	60-69세	(254)	7.1	28.7	47.2	16.9	35.8	64.2	2.74
	70-79세	(136)	6.6	36.0	45.6	11.8	42.6	57.4	2.63
권역	수도권	(808)	7.5	27.4	43.9	21.2	34.9	65.1	2.79
	충청권	(153)	5.2	19.6	52.9	22.2	24.8	75.2	2.92
	경북권	(149)	6.7	22.8	51.0	19.5	29.5	70.5	2.83
	경남권	(229)	4.8	27.5	50.2	17.5	32.3	67.7	2.80
	전라권	(161)	3.7	21.1	52.8	22.4	24.8	75.2	2.94
혼인상태	미혼	(431)	4.9	20.9	53.6	20.6	25.8	74.2	2.90
	유배우	(982)	6.9	27.0	45.1	21.0	33.9	66.1	2.80
	이혼·별거	(44)	4.5	29.5	45.5	20.5	34.1	65.9	2.82
	사별	(40)	10.0	35.0	40.0	15.0	45.0	55.0	2.60
	기타	(3)	33.3	0.0	66.7	0.0	33.3	66.7	2.33
자녀유무	예	(1002)	6.7	27.5	44.9	20.9	34.2	65.8	2.80
	아니오	(498)	5.8	21.3	52.6	20.3	27.1	72.9	2.87
경제적 생활수준	상/중상	(335)	6.3	24.5	46.9	22.4	30.7	69.3	2.85
	중	(650)	6.2	26.6	46.9	20.3	32.8	67.2	2.81
	중하/하	(515)	6.8	24.7	48.5	20.0	31.5	68.5	2.82
세대 구성	1세대	(330)	6.7	31.2	46.7	15.5	37.9	62.1	2.71
	2세대	(918)	6.3	23.6	47.7	22.3	30.0	70.0	2.86
	3세대 이상	(58)	5.2	25.9	46.6	22.4	31.0	69.0	2.86
	1인 가구	(190)	6.8	23.7	48.9	20.5	30.5	69.5	2.83
	비혈연 가구	(4)	0.0	50.0	0.0	50.0	50.0	50.0	3.00

부 록1.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부-자녀 중심의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파악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평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과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 조사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 조사 협력기관 : 엠비씨플러스

■ 조사 진행기관 : (주)엠브레인퍼블릭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가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와 '동의한다' 중에서 말씀해주세요

항 목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1)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	①	②
2)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①	②
3)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①	②

2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수용할 수 없다', '별로 수용할 수 없다', '약간 수용할 수 있다',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중에서 말씀해주세요

항 목	전혀 수용할 수 없다	별로 수용할 수 없다	약간 수용할 수 있다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1)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①	②	③	④
2)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①	②	③	④
3)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①	②	③	④
4)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①	②	③	④
5)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6)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①	②	③	④
7)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①	②	③	④

3

만약에 귀하 본인이 결혼하려는 상대방 또는 귀하의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가족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중에서 말씀해주세요

항 목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한부모 가족의 자녀	①	②	③	④
2) 재혼 가족의 자녀	①	②	③	④
3) 미혼부/모(미혼부나 미혼모) 가족의 자녀	①	②	③	④
4)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	①	②	③	④
5) 다문화 가족의 자녀	①	②	③	④
6) 입양된 자녀	①	②	③	④

4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들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중에서 말씀해주세요

항 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①	②	③	④
2)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①	②	③	④
3) 아버지,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①	②	③	④
4)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①	②	③	④

5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중에서 말씀해주세요

항 목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현행 법령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에 기반하여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하여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2) 현행 법령에서는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3) 현행 민법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구분 짓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용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6

귀하는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돌봄 등 서비스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의 명칭으로 다음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가정기본법 ② 가족정책기본법

7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법을 다른 기본법과 같이 독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별로 타당하지 않다 ③ 대체로 타당하다 ④ 매우 타당하다

거주지역	① 서울 ⑥ 대전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광주 ⑯ 강원 ⑰ 경북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 령	① 20 ~ 29세 ② 30 ~ 39세 ③ 40 ~ 49세 ④ 50 ~ 59세 ⑤ 60 ~ 69세 ⑥ 70세 이상
혼 인 상 태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이혼·별거 ④ 사별 ⑤ 기타()
자녀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학 력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졸업 ④ 대학원 재학/졸업
직 업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④ 화이트칼라(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⑤ 가정주부 ⑥ 학생 ⑦ 무직 ⑧ 은퇴 ⑨ 기타(적을 것)
경제적 수준 귀하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가구 구성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을 모두 말씀해주시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 : _____명(본인 포함) ①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조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 ⑥ 손자녀 ⑦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⑧ 비혈연동거인 ⑨ 혼자 거주(1인 가구) ⑩ 기타()

Contact us

정교은 부장/팀장

cke@embrain.com | +82-2-3429-1768

김효진 차장

연구 3부

Kimhj@embrain.com | +82-2-3406-3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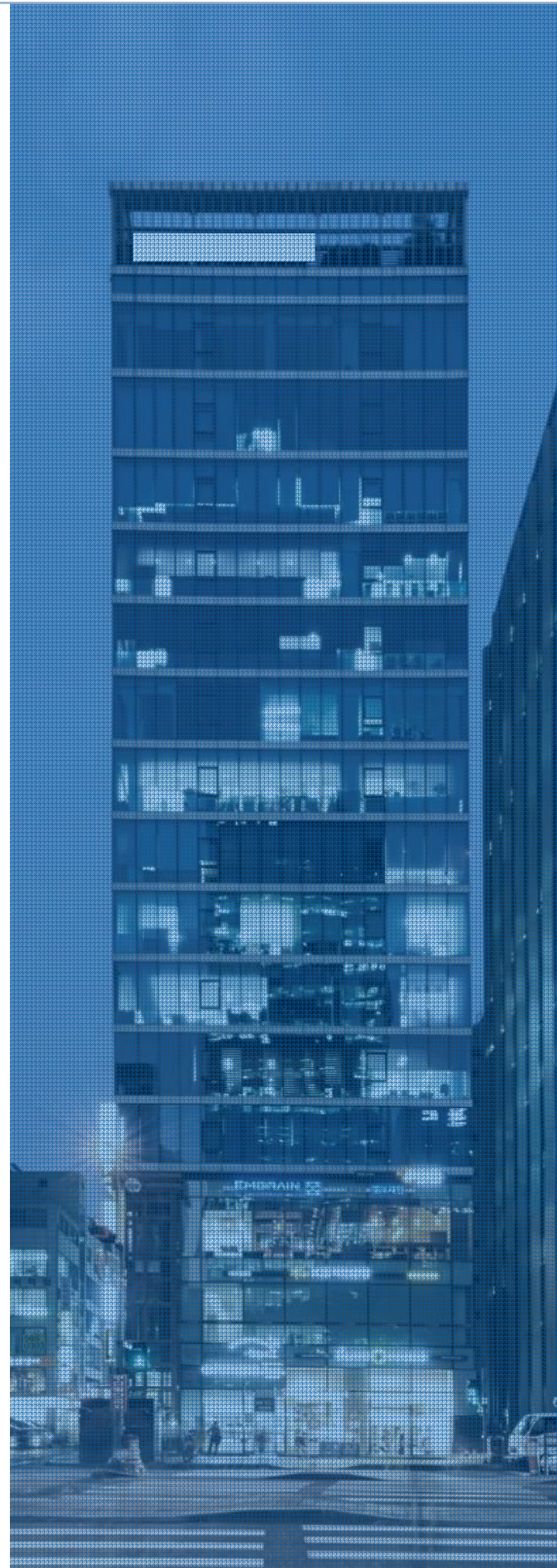
당사는 한국조사협회 정회원사로서,
유럽조사협회(ESOMAR) 및 국제상공회의소(IOC)
국제 규약에 의거한 조사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EMBRAIN PUBLIC All Rights Reserved.

Address. 3~5th Fl. Tower 837 Bldg., 318,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Korea, (06253)

Phone. +82-2-2052-6700 | Web. public.embrain.com





Copyright© EMBRAIN PUBLIC All Rights Reserved.

Address. 3~5th Fl. Tower 837 Bldg., 318,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Korea, (06253)

Phone. +82-2-2052-6700 | Web. public.embrain.com

당사는 한국조사협회 정회원사로서,
유럽조사협회(ESOMAR) 및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규약에 의거한 조사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Korea
Research
Association
한국조사협회

EMBRAIN
PUBLIC

